

2024년
제63회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강연회

기쁨을 빼앗긴 시대에
기쁨을 말하다

- ◆ 일 시 : 2024년 11월 7일(목) 오후 2시
- ◆ 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
- ◆ 주 최 : (재)한국기독교학술원

Academia Christiana of Korea

목 차

●초대의 말씀 / 손인웅 원장	4
●제1강연: “기쁨의 신학 개괄” / 김성봉 박사	9
●제2강연: “기쁨의 영성, 기쁨의 신학- 구약신학적 고찰” /王大일 박사	51
●논 찬 / 김선권 박사	111
●한국기독교학술원 소개	121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강연회 역사	125



초대의 말씀

손 인 웅 / (재)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기쁨이 없는 시대에 기쁨을 말하다.”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 같아도 이내 그 기쁨은 신기루같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았던 기쁨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배신과 절망과 슬픔과 허무가 찾아옵니다. 마약과 질병과 죽음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복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쁨이 없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힘차게 전해야 합니다. 세속화 시대는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찾아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기쁨의 신학을 발전시켜야 하며 세상을 향해 놀라운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기쁨의 신학은



아직 교회 안에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예일 대학교의 볼프(M. Volf) 교수가 템플턴(Templeton) 재단의 엄청난 연구비를 받아 ‘기쁨의 신학’(A Theology of Joy)에 대한 연구를 진작시키고 있는데, 이는 세계 교회를 살리기 위한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학술원도 세계 교회를 살리기 위해 기쁨의 신학을 발전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구약학을 전공하신王大일 교수님께서서는 성서 속에 나타난 기쁨을 매우 훌륭하게 밝혀내셨습니다. 조직신학자인 김성봉 교수님께서 신학적으로 기쁨의 신학을 놀랍게도 잘 정리하고 발전시키셨습니다. 이 두 분의 강연은 미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기쁨의 신학’을 넘어서는 매우 훌륭한 강연입니다. 교회를 활기 있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강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1강연 발제 ❧

“기쁨의 신학 개괄”

강 사 : 김 성 봉 박사

■ 김 성 봉 박사 프로필 ■

- ▲ 서울대학교 철학과 (B.A.)
- ▲ 합동신학대학원 (M.Div.)
-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영어 (Th.M.)
- ▲ 독일 윈스터 대학교 신학부 (Dr.theol.)
- ▲ 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장



- 목 차 -

초록

시작하는 말

1. 지난날의 논의에서
 - 1.1. 헨리 스쿠걸(Henry Scougal, 1650-1678)
 - 1.2. 요한 제바스치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 1.3. 아돌프 슬라터(Adolf Schlatter, 1852-1938)9)
 - 1.4. 토레이(Reuben Archer Torrey, 1856-1928)14)
 - 1.4.1 첫째 근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위해 열매 맺는 것
 - 1.4.2 둘째 근원은 영혼을 구하는 기쁨
 - 1.4.3 셋째 근원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
 - 1.4.4 넷째 근원은 하나님 자신
 - 1.5. C. S. 루이스(C. S. Lewis, 1898-1963)18)
 - 1.6.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
 - 1.7. 위르겐 몰트만(Juergen Moltmann, 1926-2024)

2. 현황

- 2.1. 존 파이프(John Piper, 1946~)
- 2.2. 미로슬라브 볼프(Mirislav Volf, 1956~)
- 2.3. 김명웅(1952~)
- 2.4. 김도훈(1959~)

3. 근거

- 3.1. 구약에서
 - 3.1.1 충만한 기쁨(시 17:15, 21:6, 36:8, 65:4)
 - 3.1.2 영원한 즐거움(시 36:8)
- 3.2. 신약에서
 - 3.2.1 주님의 기쁨(비교. 고후 2:3)
 - 3.2.2 제자들의 기쁨(16:24, 17:13; 요일 1:4; 요이 12)
 - 3.2.3 성도들의 기쁨

4. 의의

- 4.1. 시대적 요청
- 4.2. 성경의 관심 복원
- 4.3. 주의
맺음말



기쁨의 신학 개괄

김 성 봉(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초록

‘기쁨의 신학 개괄’이란 제하에 이제까지의 논의, 현황, 성경에서의 언급 그리고 의의의 순으로 다루었는데, 이제까지의 논의에서는 스쿠걸, 바흐, 술라터, 토레이, 루이스, 바르트와 몰트만의 ‘기쁨’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았으며, 현황에서는 파이퍼와 볼프, 김명용과 김도현의 논의를 언급하였다. ‘기쁨의 신학’의 근거로 성경에서의 언급을 살펴 그 타당성을 살펴보았으며, ‘기쁨의 신학’의 의의로 시대적 요청과 성경의 관심 복원 그리고 네 가지 주의를 말하였다.

‘기쁨의 신학’의 근거로 성경에서 ‘기쁨’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았는데, 구약에서 시 16:11을 신약에서 요 15:11을 표본 구절로 택하여 성경에서의 기쁨에 관한 언급을 살펴보았는데, 옛 성도

다윗은 생명의 길을 말하면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언급하며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가지신 그 기쁨에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 또한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원하였다. 이처럼 기쁨은 성경의 주요 주제이며 관심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대적 요청을 두 가지로 말하였는데, 하나는 절망과 위기의 시대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신학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현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신학이라는 점이다. 성경의 관심 복원에서는 신학이 그동안 전개하지 못했던 기쁨이라는 주제를 복원시킨 것인데, 이에 신학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신학의 주제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네 가지로 주의를 환기하였는데, 첫째는 중심 이동 현상에 대한 우려이며, 둘째는 주객전도 현상에 대한 우려이며, 셋째는 양자택일 현상에 대한 우려이며, 넷째는 기쁨 일변도의 배타적인 경향에 대한 우려이다.

<주제어>

기쁨, 헨리 스쿠걸, C. S. 루이스, 존 파이퍼, M. 볼프,

시작하는 말

‘기쁨의 신학’에 대한 지난날의 논의와 현황 그리고 그 근거와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날의 논의에서는 헨리 스쿠걸(Henry Scougal), 요한 제바스치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아돌프 슬라터(Adolf Schlatter), 르우벤 아처 토레이(Reuben Archer Torrey), 씨 에스 루이스(C. S. Lewis) 그리고

칼 바르트(Karl Barth)와 위르겐 몰트만(Juergen Moltmann)을 소개하고, 현황에서는 존 파이프(John Piper)와 미로슬라프 볼프(Mirislav Volf)를 다루고, 특히 한국 내에서의 논의에 대하여는 최근에 이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¹⁾을 낸 신주현의 지도교수 김도현과 세계 교회의 위기 속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김명용을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근거로는 신구약 성경에 언급된 기쁨을 찾아내어 다루었고, 이러한 논의의 의의에 대하여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소통 가능성에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1. 지난날의 논의에서

헨리 스쿠걸과 요한 세바스치안 바흐 그리고 아돌프 슬라터와 루우벤 아처 토레이와 씨 에스 루이스 그리고 칼 바르트와 위르겐 몰트만에게서 보이는 “기쁨”에 대한 관심을 간략하게 소개하려 한다.

1.1. 헨리 스쿠걸(Henry Scougal, 1650-1678)

헨리 스쿠걸은 스코틀랜드 복음주의의 가장 위대한 증인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에버딘 대학 킹스 칼리지를 졸업한 후 철학교수가 되었고, 4년 후 목사안수를 받은 뒤 1년간 목회를 하였다. 이후 글래스고우 대주교인 로버트 레이턴의 신학교에서 봉직하였으며, 신학교수로서 5년간 가르치다가 28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

1) 신주현, “칼 바르트와 위르겐 몰트만에 나타난 기쁨의 신학 이해,”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으로 사망하였다. 스쿠걸이 그의 가르침과 설교와 글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힘썌던 한 가지 일은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며 그 분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이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열망이 탄생시킨 한 권의 책이 바로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이다.²⁾ 원래 이 책은 한 친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려는 마음에서 편지 형태로 쓴 글이다. 2003년 영국 Grace Publications Trust에서 God's Abundant Life란 이름으로 출판한 이 책의 서언을 쓴 스티브 헨젯은 존 파이퍼의 글을 통해서 처음으로 헨리 스쿠걸이라는 이름과 친숙해졌다고 밝힌다. 존 파이퍼는 그가 쓴 『하나님의 기쁨』(The Plesasures of God)에서 스쿠걸의 바로 이 책의 한 문장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보물 창고를 열어 준 열쇠”³⁾라고 칭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표현이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⁴⁾

1.2. 요한 제바스치안 바흐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좋은 성가곡이 독일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나의 기쁨(Jesu, meine Freude)》(BWV 227)이다. 애초에 《예수, 나의 기쁨(Jesu, meine

2) 헨리 스쿠걸, 김태곤 역,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서울: 생명의말씀사, 2024)

3) 존 파이퍼, 이상준 역, 『하나님의 기쁨』(서울:두란노, 2020), 19쪽.

4) Scougal, *The Life of God*, 46-47.

Freude)》은 17세기 독일의 서정 시인이며 찬송가 작가였던 요한 프랑크(Johann Frank, 1618-1677)가 노랫말을 지어 독일 작곡가 요한 크뤼거(Johann Crueger, 1598-1662)의 멜로디 위에 실어내며 1650년에 찬송가로 태어났다. 이 찬송가의 노랫말이 많은 작곡가들의 칸타타 등 종교작품에 인용되었는데, 위에 언급한 성가곡은 독일 루터 교회 찬송가에 올려진 이 찬송가의 노랫말을 인용하여 바흐가 1723년에 라이프찌히(Leipzig)에서 작곡한 모테트이다.⁵⁾ 곡의 구성은 전 11악장으로 이루어지는데, 루터 교회 찬송가에 실렸던 요한 프랑크가 남긴 찬송가를 그대로 인용한 관계로 각각의 홀수 악장 6개의 제목과 내용이 동일할 뿐 아니라 음조도 크뤼거의 것과 동일하다. 짝수 악장의 노랫말은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인용되었으며(1, 4, 2, 9, 11절의 순서로 중간에 인용), 5성부의 반주합창으로 작곡되어 있다.⁶⁾ 바흐는 이 곡을 통해 가사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전반적으로 가사의 내용 중 성경 구절은 예수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코랄은 신도들이 예수를 보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로부터 얻은 평안을 갈망한다. 본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에도 81장에 수록되어 있는데, 한국말 가사는 영국을 거치면서 첫 시작 절이 조금 변경되어 있다.⁷⁾ 본래 독일어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5) 《예수, 나의 기쁨》은 라이프치히 명문가 중 하나인 크리스토퍼 빙클러의 부인 수잔나 소피아 빙클러의 장례식에서 연주되었다고 하는데, 1723년 7월 요한나 마리아 키에스(Johanna Maria Kees)의 장례식이라는 설도 있다. 초연 날짜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1723년, 1726년, 1734년이라는 주장이 있어 분명하지 않다.
- 6) 훗날 아프리카 랑바렌네에서 병원 활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이 곡에 대하여 "이 신비한 코랄의 각 시절을, 그 사이에 들어오는 로마서 8장에서 취한 같은 음의 성구로 설명해가는 방법은 비할 데 없이 깊은 위대한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가사는 삶과 죽음에 대한 바흐의 설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감탄한 바 있다.
- 7) 영국의 교육자였으며 여류찬송가 작가였던 캐더린 윈크워드(Catherine Winkworth, 1827-1878)가 1869년에 영어로 번역하여 완성한 "Jesu, priceless treasure(예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란 제목을 가진

예수, 나의 기쁨,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힘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롬 없어 더 바랄 것 없도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도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를 덮쳐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 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아무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 있어. 주는 나의 보배.

이처럼 앞서간 성도들은 일찍부터 우리 신앙의 핵심을 ‘기쁨’으로 노래하였다.⁸⁾

1.3. 아돌프 슬라터(Adolf Schlatter, 1852-1938)⁹⁾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1).

찬송가는 전 영어권 나라에서 오늘날까지 불리고 있는데, 한국 찬송가는 그 가사를 신고 있다.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81장)

- 8)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기쁨을 노래한 곡들이 몇 곡 있는데(364장, 431장과 434장), 특히 434장은 절절히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 9) 아돌프 슬라터는 튀빙겐 대학교에서 신약신학과 조직신학을 강의했던 세계적인 신학자였다. 로버트 모간은 벵겔 이후에 그를 최고의 보수주의 신약신학자로 본다(위키 백과).

술라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중시하였고,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그의 신학을 ‘기쁨의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¹⁰⁾ 술라터의 이 ‘기쁨의 신학’의 특성은 그의 신학의 또 다른 한 특성, ‘겸손의 신학’과 더불어 술라터 신학의 두 가지 큰 특징들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가 ‘기쁨의 신학’을 제창했던 이유는 한 마디로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를 자유로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지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쁨을 술라터가 중시했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 설교의 청중과의 상관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었다.¹¹⁾

술라터의 기쁨의 신학은 그의 일생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모는 아홉 자녀들을 깊은 신앙심 안에서 양육하였는데, 물론 그들의 가정에도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기저기에 깃들이고 있었다. 술라터의 맏형은 심한 지체장애자였으나 가족들은 그가 그 장애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서로 도우면서 살았다. 술라터는 유년기에 그의 19세 나는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으나 부모들은 딸의 시체 주위에 자녀들을 모아 세워 놓고 요한 계시록 21장을 식구들이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게 하여 그 성경이 자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했다. 술라터는 유년기에 주일 오후마다 부모를 따라서 스위스의 산지를 하이킹하는 재미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주일 저녁 예배를 매번 즐겁게 참석하곤 했었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가정 분위기 때문에 후년에 부인의 별세, 차남 파울의 전사 등의 비운들을 계속 맞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교수직과 저술활동을 계속했었다고 전해진다. 그가 24년간 재직한 튀빙겐 대학에서는 동료 교수 중의 한 사람이었던 아돌프 하르낙(A. Harnack)이 심지어 ‘사도신경 무용론’을 주장

10) 실제로 그는 *Dass Meine Freude In Euch Sei*(Stuttgart:Calwer Verlag, 1927)라는 일 년 성경 묵상집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11) 한재호, 미간 자료.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own2425&logNo=221728669819>

하면서 술라터의 보수신학을 공격했으나, 술라터는 이런 모든 삶의 과정에서 그의 기쁨의 신학을 더욱 깊은 차원으로 견지해 나갔었다.¹²⁾

특히 술라터는 예수님의 기쁨과 우리 설교의 상관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예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과의 질적 차이를 말하면서 우리의 설교에서 이 질적 차이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평가하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허점에서 생겨나는 우리의 해석과 성경 본문과의 괴리가 우리의 설교에서 청중과의 상관성을 가질 수 없게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술라터의 성경 이해를 바르게 음미할 때 그의 ‘기쁨의 신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술라터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시편 69편의 성경에 의거하여 성경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시편은 그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그의 최후의 밤에 제자들에게 그의 삶과 피를 주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다.¹³⁾

1.4. 토레이(Reuben Archer Torrey, 1856-1928)¹⁴⁾

토레이는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가지신 특성으로 ‘변함없는 기쁨’을 언급하였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종래의 조직신학적 접근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다.¹⁵⁾ 그는 요한복음 16장 20-22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한다.¹⁶⁾ 토레이 역시 예수

12) 한제호, 미간행자료.

13) A. Schlatter, *The Theology of the Apostles*(Baker, 1999), 191.

14) R. A. Torrey는 휘튼대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무디성경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15) 그리스도의 위격, 신분, 직분을 논하는 종래 방식에서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논의될 여지는 없었다.

님의 다음의 말씀에 주목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 15:11)

이러한 주님의 기쁨의 근원을 토레이는 다음 몇 가지로 열거한다.¹⁷⁾

1.4.1 첫째 근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위해 열매 맺는 것

요한복음 15장 10, 11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데 있으며,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위해 열매를 맺는 이러한 기쁨은 또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 기쁨이 될 수 있고, 또한 모두 다 우리에게 열려있다고 한다.

1.4.2 둘째 근원은 영혼을 구하는 기쁨

이사야 53장 11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는 말씀에 치중하며, 눅 15:6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한다. 그의 죽으심의 고통의 결과로 새로 태어나게 된 영혼들을 고려하며, 이 기쁨 또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한다.

1.4.3 셋째 근원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기뻐하사’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

16) 토레이, 김성봉 역, 『예슈아』(서울:무실,1993), 147.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통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요 16:20-22)

17) 같은 책, 147-150.

다. 아버지 뜻 안의 그 지혜와 모든 무한한 탁월함을 즐거이 바라는 기쁨이요, 이것 역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우리 것이 되어야만 하는 매우 큰 기쁨이다.

1.4.4 넷째 근원은 하나님 자신

예수님의 기쁨의 가장 깊은 근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예수님의 최고 기쁨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불변하며 또한 한량없는 것이다. 이 기쁨 역시 우리에게 열려 있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의 기쁨을 손상시킬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처럼 토레이는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그 분의 특성 중 하나로 ‘기쁨’을 말하였다.

1.5. C. S. 루이스(C. S. Lewis, 1898-1963)¹⁸⁾

루이스 연구가인 박성일에 의하면 루이스는 기쁨에 대해서, 우선 존재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자체에서부터 설명을 한다.¹⁹⁾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이다. 그분께로부터 기쁨이 마치 격렬한 에너지처럼 뿜어 나와 온 우주에 퍼져 나간다. 기쁨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 세계에 근거한다. 이 초월적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며, 이것을 ‘종말적 현실’이라고 말한다.

루이스에게 있어서 현세는 다른 세계와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누린다. 현세는 영원한 다른 세계의 그림자이다. 우리는 (현세를 위하여 지음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다른 세계를 위하여 지음 받았고 또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그는 믿었다.

18) 영국의 소설가이자 잉글랜드 성공회의 평신도이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다.

19) 박성일, 『헤아려 본 기쁨』(서울:두란노, 2021), 44.

물론 이러한 종말적 경향을 현실에 대한 도피 성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박성일에 의하면, 루이스는 현실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면서도 그 답을 영구하고 보편적인 기독교의 진리에서 찾으려고 한다.²⁰⁾ 루이스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시스템 안에서 해답을 찾아내려고 한다.

루이스에 대하여 볼프는 루이스의 기쁨 담론은 “사회 정치적(socio-political)이기보다는 개인적(personal)이다”²¹⁾라고 평가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박성일은 “루이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근거한 것”²²⁾이라고 논평하였다. 박성일에 의하면 루이스의 기쁨 담론은 결코 개인적인 측면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지극히 경험적이면서도 초월적인 강조점을 갖고 있다. 그 윤리의 중심에는 자아 중심성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타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 있고, 이 여정에서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타자에 대한 품미’(taste for the other)를 향유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아를 떠나 진정한 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예배의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기쁨이고 희열이다.²³⁾

20) 위의 책, 45.

21) (“Theology of Joy: N. T. Wright with Miroslav Volf” 볼프가 N. T. 라이트를 인터뷰한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2u3PGZc8VsU>

22) 박성일, 45.

23) 박성일은 루이스의 기쁨 담론을 다음과 같은 꼭지들로 다루었다.

1. 천국: 기쁨은 어디에서? 나를 위해 예비 된 천국의 기쁨
2. 갈망(Joy): 내 안을 흔들고 지나간 기쁨의 흔적
3. 즐거움(Pleasure): 감각으로 느끼는 기쁨
4. 향유(Enjoyment): 대상에 집중할 때 오는 기쁨
5. 품미(Taste): 타자를 느낄 줄 아는 기쁨
6. 희열(Delight): 예배자가 누리는 기쁨
7. 춤(Dance):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향연

이런 면들을 두루 살핀 후에 박성일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기쁨의 신학, 또는 기쁨 담론을 전적으로 다룬 연구는 사실상 부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다.”²⁴⁾

다음으로 다룰 인물은 바르트와 몰트만인데 여기서는 최근 바르트와 몰트만의 기쁨의 신학을 비교 연구한 학위 논문 한 편을 소개하면서 바르트와 몰트만의 기쁨의 신학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한다.²⁵⁾

1.6.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

신주현은 바르트에 나타난 기쁨의 신학을 살피면서 신론과 창조론과 화해론에 나타난 기쁨의 신학으로 나누어 논구하였다.²⁶⁾ 먼저 신론에서는 신인식과 하나님의 속성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기쁨의 신학을 살폈다. 다음으로 창조론에서는 창조의 긍정, 인간 규정과 감사, 기쁨의 관점에서 본 안식일 그리고 삶의 긍정과 기쁨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화해론에서는 화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해방의 기쁨,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과제로서의 기쁨을 논하였다.

바르트의 기쁨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며 포괄적이다.²⁷⁾ 다양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의 감정의 기쁨에서 시작하여 창조의 기

박성일은 기쁨이란 주제와 관련하여 『교회교의학』(대한기독교서회, 2017) 제 3권에 나오는 종말적 기쁨에 대한 바르트의 숙고와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Hans Urs von Balthasar)의 『신적-드라마』(*Theo-Drama*)에 간단히 주장되고 있는 삼위일체 속에 드러난 기쁨과 고통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도 언급한다(38).

24) 박성일, 8.

25) 신주현, “칼 바르트와 위르겐 몰트만에 나타난 기쁨의 신학 이해,”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26) 위의 책, 32-82.

27) 위의 책, 131.

쁨, 피조물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까지 나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바르트에게서 나타나는 기쁨 이해는 일종의 종말론적 기쁨 이해이다. 그 이유는 바르트는 모든 기쁨이 원칙적으로 미리 기뻐하는 것으로서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다. 바르트에게서 기뻐하는 삶이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바르트의 기쁨 이해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가 기쁨을 성령의 신비한 일로 보는 관점이다.²⁸⁾ 바르트에 의하면 참된 기쁨이 오직 성령이 임하고 존재할 때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타난다. 나아가 기쁨은 “사회적”이란 표현까지 쓴다. 이는 기쁨이 나뉘지길 바라고 퍼지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온다고 말한다. 기쁨은 가장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

1.7. 위르겐 몰트만(Juergen Moltmann, 1926-2024)

신주현은 몰트만에 나타난 기쁨의 신학을 살피면서 놀이의 신학, 하나님의 기쁨과 인간의 응답, 풍성한 삶과 기쁨, 축제로서의 예배와 안식일 그리고 종말론에 나타난 희망과 기쁨을 논하였다.²⁹⁾ 몰트만은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강조한다.³⁰⁾ 기독교는 성탄으로부터 시작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 가운데서 태어났다. 부활절은 죽음을 이긴 기쁨의 축제이다. 성령은 생

28) 위의 책, 132.

29) 위의 책 83-129.

30) 유장환, “무신론과 무감각에 맞서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의 신학으로,” 『기독교사상』 2017년 11월호, 215-220. 위르겐 몰트만, 『살아 계신 하나님과 풍성한 생명』, 박종화 역(대한기독교서회 2017)에 대한 서평. 몰트만의 아주 간결한 책 『신학과 기쁨』(*Theology and Joy*)이 있으나 입수하지 못 함.

명의 영으로서 인간을 새로운 생명, 열린 생명, 진정한 기쁨의 생명으로 소생시키신다. 몰트만에 의하면 구원의 진정한 실재는 영원한 생명,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의 생명이 영원한 신적 생명에 참여하여 얻은 새로운 생명이다.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이다. 미래에서 오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가져오는 새로운 세계, 즉 희망의 나라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이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성자 하나님이 능히 고난을 감내하신 것은 죄로 물들고 비참하며 유한한 생명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한 것은 새로운 생명, 즉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이다. 몰트만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축제 속에서 사는 존재이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함이고,
사랑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삶을 기뻐함이고,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세계를 미리 맛보며 기뻐함이다.”³¹⁾*

몰트만이 말하는 기쁨 역시 전인적이다. “물론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자 감성의 기쁨이기도 하다. 성령은 몸과 세상과 감각에 적대하는 영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땅을 거룩하게 하고, 생명을 살게 하고, 온 감각을 일깨운다.”³²⁾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깨어나 하나님의 오심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며 맞이하는 신앙이다. 종말론적인 희망 속에서 산다는 것은 영생을 미리 맛보는 삶 즉, 희망하는 미래가 기쁘기에 지금 여기서도 전적으로 기쁘게 살며, 우는 자

31) 몰트만, 『살아 계신 하나님과 풍성한 생명』, 145.

32) 유장환, 219.

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롬 12:15) 사는 삶이다. 몰트만은 교부 아타나시우스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삶을 끝없는 축제로 만드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된다.

이처럼 ‘기쁨의 신학’에 대한 지난날의 논의란 제목 아래 스쿠걸과 바흐, 슬라터와 토레이와 루이스 그리고 바르트와 몰트만에 게서 보이는 “기쁨”에 대한 관심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현황이란 제하에 다루고자 한다.

2. 현황

신학자요 목회자로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란 주제에 집중한 존 파이퍼(John Piper, 1946-)와 최근 본격적으로 기쁨의 신학을 이슈화하고 있는 미로슬라브 볼프(Mirislav Volf, 1956-)의 입장을 소개하고 여기에 덧붙여 기독교가 직면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기쁨의 신학’을 제창하는 김명용과 최근 이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낸 신주현의 지도교수인 김도현의 긍정 신학에 대한 논의도 소개하고자 한다.

2.1. 존 파이퍼(John Piper, 1946~)

그는 ‘기쁨의 신학자’이자 ‘희락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1991년에 펴낸 『하나님의 기쁨』³³⁾이란 책에서 스쿠걸을 언

33) John Piper, *The Pleasures of God*, (Colorado Springs: Multnomah Books, 1991. 2000). 존 파이퍼, 이상준 역, 『하나님의 기쁨』(서울: 두란노, 2020).

급하면서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스쿠걸의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보물창고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다고 밝히며,³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별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 파이퍼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기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집중하도록 한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주된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³⁵⁾고 거듭 말한다. 다음으로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도록 권한다.³⁶⁾ 하나님의 기쁨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넘치는 만족으로 창조세계를 기뻐하신다”는 제목 하에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라고 하지 말라”는 소제목 하에서의 논의는 상당히 인상적이다. 그는 루이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다.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라고 애쓰는 크리스천들이 마치 기독교는 성이나 육체나 쾌락을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해 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들 중에서 육체를 전적으로 긍정하는 거의 유일한 종교다.”³⁷⁾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2011년에 펴낸 『신학자로서의 목사 & 목사로서의 신학자』에서도 그는 같은 주장을 개진한다. “지금까지 내 사역의 중심을 차지해 온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다.”³⁸⁾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 바로 충분한 근거를 가진 만족이라고 말한

34) 위의 책, 19.

35) 위의 책, 269.

36) 이 부분에 있어서 유기성 목사의 주제와 만난다. 유기성,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서울:규장, 2023)

37) 위의 책, 95. 앞서 몰트만을 언급할 때 말하였던 “성령은 몸과 세상과 감각에 적대하는 영이 아니다.”는 내용과 만난다.

38) 존 파이퍼, 전광규 역, 『신학자로서의 목사 & 목사로서의 신학자』(서울:부흥과개혁사, 2012), 53.

다.³⁹⁾ 그에 의하면 기독교 희락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거기에 운율을 붙인 것뿐인데, 조나단 에드워즈와 C. S. 루이스를 예로 들었다.⁴⁰⁾

2.2. 미로슬라브 볼프(Mirislav Volf, 1956~)

최근 들어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를 중심으로 ‘좋은 삶(good life)과 질적 풍요로움(fourishing)을 누리는 삶’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⁴¹⁾ 그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종교가 지닌 정당한 역할에 대해 고민했고, 결국 ‘좋은 삶’과 ‘풍요로움’에서 그 열쇠를 찾았다고 주장한다.⁴²⁾ ‘예일 신앙과 문화 연구소’(Yale Center for Faith and Culture)에서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미로슬라브 볼프와 그의 제자인 저스틴 이 크리스프(Justin E. Crisp)가 편집한 *Joy and Human Flourishing*(『기쁨과 인간의 번영』)이 발행되었다.⁴³⁾ 이 프로젝트에 위르겐 몰트만, 마리엔 톰슨(M. Thompson), N. T. 라이트(Wright) 등이 함께 참여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점은 볼프가 정의하는 ‘좋은 삶’ 속에 기쁨이 차지하는 자리인데, 그는 세 가지의 축으로 좋은 삶을 설명한다.⁴⁴⁾ 첫째는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the

39) 위의 책, 61.

40) 위의 책, 53-54.

41) 박성일, 38-39.

42) 위의 책, 39.

43) M. Volf & Justin E. Crisp, ed., *Joy and Human Flourishing: Essays on Theology, Culture, and the Good Life*(Fortress Press, 2015). 이 책은 기쁨을 기독교 신앙과 삶의 중심에 두고, 기쁨의 성경적, 교리적, 교회론적, 윤리적 차원을 탐구하며, 변화하는 문화의 조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44) 박성일, 39. 저자는 여기서 *Joy and Human Flourishing*에 실려 있는 “The Crown of the Good Life: A Hypothesis”를 인용하고 있다.

life that is lived well), 이것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이다. 둘째는 이런 삶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누리는 것인데(the life that goes well), 이것은 평강이다. 셋째는 그 결과로 찾아오는 정적 충족(the life that feels good)인데, 이것이 ‘기쁨’이다. 바로 이런 내용을 롬 14:17과 연관하여 생각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처럼 볼프는 기쁨을 좋은 삶과 풍요로움의 중대한 결과물로 보았다. 볼프에 의하면 기쁨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 이상의 것이다.⁴⁵⁾ 기쁨은 반드시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이며, 기쁨도 어떤 대상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볼프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를 인용한다. “기쁨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과의 연합에 대한 반응”⁴⁶⁾이라고. 기쁨은 그 대상을 선택한 것으로 규정한 결과인데,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받아들일 때 기쁨이 유발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볼프에 있어서 기쁨이란 “내가 선택한 축복으로 받아들인 세상과 내 자아가 감정적으로 조율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기쁨을 배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일”인데, “기쁨은 명령되지만 강요될 수는 없다.”⁴⁷⁾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 가치에 동감하고 동의해야 내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기쁨은 나의 자유로운 반응이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아니다. 기쁨은 또한 사랑과 함께 ‘영원을 구하는’(eternity-seeking) 감정이다.⁴⁸⁾

이런 측면에서 기쁨은 우리 안에 어떤 동기를 유발하는 힘이 있다. 따라서 기쁨은 한 개인, 사회 및 정치적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고, 또 그 변화를 이루어 낸 이후의 결과물이 되기도 하다.

45) 박성일, 40.

46) 위의 책, 40.

47) 위의 책, 41.

48) 위의 책, 41.

볼프가 강조하는 것은 기쁨이 가장 극대화되는 자리가 공동체라는 것이다.⁴⁹⁾ 기쁨은 동반자를 찾고, 함께 즐거워하는 동반자는 서로의 기쁨을 확대시킨다. 그러므로 기쁨이 가장 활성화된 자리에는 공동체적 잔치와 축제가 있다고 말한다.

볼프에 의하면 기쁨은 참여자의 성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도 한다.⁵⁰⁾ 가장 진정한 기쁨은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좋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의미를 갖게 된다. 좋은 삶이 지속되고 지탱되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 기쁨은 가장 온전하게 누려질 수 있다. 이처럼 기쁨은 좋은 성품과 환경의 감정적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좋은 삶의 세 가지 축(성품, 환경, 결과)이 구축될 때에 그 안에서 기쁨은 정당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기쁨은 “좋은 삶 위에 씌워지는 왕관과 같다”(the crown of the good life)고도 했는데, 왕이 왕관을 쓰는 것이지 왕관 자체가 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듯이, 좋은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기쁨 자체가 좋은 삶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기쁨은 좋은 삶의 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C. S. 루이스 연구가로서 박성일은 “기쁨”이라는 주제에 대한 볼프의 글을 읽은 후에 루이스와 대조하여 이렇게 평가한다. 먼저 “기쁨”이라는 주제와 연관하여 볼프가 루이스를 의미 있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서운한 듯이 말한다. 기쁨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두 사람이 차이를 보이는데, 볼프의 경우는 현세적(this-worldly)이며 실행적(praxis)인 면에 강조점을 두는 데 비하여 루이스의 기쁨 담론은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하고 있고, 종말적(eschatological)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한다.⁵¹⁾ 그에 의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전문신학자가 아니었던 루이스의 기쁨 담론이

49) 여기서 바르트와 볼프가 만난다. 신주현은 화해론에 나타난 기쁨의 신학을 다루면서 공동체의 과제로서의 기쁨을 말한다. 신주현, 80-82.

50) 박성일, 42.

51) 위의 책, 43.

도리어 상당한 신학적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쁨”이라는 주제가 신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이 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이며 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신학적 주제라고 말한다.⁵²⁾

이 같은 볼프의 신학에 대하여 한승홍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볼프는 ‘번영하는’ ‘무성한’ 등의 의미로 “flourishing”이란 개념을 사용했는데, 그는 이 개념에 “의” “평화” “기쁨”이 함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인간은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된 인간에게는 ‘기쁨’이 충만 된 것이다. “성취된 삶” “충만 된 삶”의 개념을 그의 낱말로 표현했을 뿐이며, 이미 인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한승홍은 전대의 이와 유사한 개념들을 열거하면서 “엄밀한 의미에서 ‘번영의 삶’이란 볼프의 개념은 100년 이전에 이미 서양 철학에서 자주 사용되던 개념”이라고 평가절하하였다.⁵³⁾

2.3. 김명용(1952~)

최근 지난 8월 19일에 온신학회 설립 10주년 기념 여름 학술대회가 대구에 있는 호텔인터볼고에서 열렸다. 김명용은 온신학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시편 30편 1절을 요절로 하여 ‘기쁨의 신학’을 발표하였다.⁵⁴⁾ 김명용은 세계교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위

52) 위의 책, 42-43.

53) 한승홍, “미로슬라브 볼프, 그의 신학은 무엇인가?”(2018.06.22.) 그는 베르그송(H. Bergson)의 “삶의 약동(élan vital)”, 짐멜(G. Simmel)의 “삶보다 더 위대한 삶(das Mehr-als-Leben)”, 텔리히의 “카이로스(Kairos)” 등을 언급하였다.

54)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기 속에서 그 위기를 헤쳐 나갈 방안 중의 하나로 ‘기쁨의 신학’을 제창하였다.⁵⁵⁾ 그는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적 상황과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교회를 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번영의 신학과 번영의 복음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의 신학과 기쁨의 복음을 주창한다. 그에 의하면 기쁨의 신학은 번영의 신학과는 다른 신학이다. “번영의 신학은 부요함과 번영에 초점이 있지만 기쁨의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삶에 초점이 있다.”⁵⁶⁾ 기쁨의 신학은 찬송가 438장에 나오는 대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고백하는 신학이다. 그는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교회를 살려내고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쁨의 신학을 정립하고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⁵⁷⁾고 주장한다. 특히 눅 4:18-19에서의 예수님의 희년 선포를 논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쁨의 세계를 만드는 사역의 주어와 관계되는 일이다. 예수님과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점이다.”⁵⁸⁾라고 한 것은 오늘날 사람 위주의 활동에 치중하기 쉬운 우리에게 주의를 요하는 진술이다. 또한 기쁨의 세계는 마귀의 역사와 싸워야 하는 심각한 과제가 있으므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물질계에 치중하여 영계를 없는 듯이 여기는 오늘날의 종교분위기에서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할 의미심장한 주장이다.⁵⁹⁾ 이를 이어받듯이 기쁨의 신학을 논하면서 “기도의 기쁨”이란 주제로 한 장을 할애하는데, 기도는 “놀라운 기쁨의 삶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기쁨의 신학

55) 2024.4.26. 인천 네스트 호텔에서의 한국기독교학술원의 학술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6-21과 2024.8.19. 호텔 인터볼고 대구에서의 온신학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의 자료집.

56) 온신학회 자료집, 27.

57) 학술위원회 자료집, 14.

58) 위의 책, 15.

59) 위의 책, 16.

은 기도의 신학이다. “기도는 ...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비밀이고, 무기이고, 기쁨의 근원이다.”⁶⁰⁾ 또한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에 기쁨을 만들고, 참된 의미에서 세상의 빛이 된다.”⁶¹⁾

2.4. 김도훈(1959~)

김도훈 교수는 기쁨과 행복은 성경의 주요 관심사이며 신학의 주요 주제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⁶²⁾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 속에서 창조되었으며, 기쁨과 행복을 향하여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⁶³⁾ 물론 현재의 세계가 기쁨과 행복의 세계는 아니라고 그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기쁨과 축제와 행복으로 충만한 세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고난과 부활에의 참여, 하나님의 창조와 현존과 섭리와 새 창조의 은총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것임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김도훈 교수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행복과 복이 매우 통전적이라고 강조한다. 현세적이며 미래적인 복, 땅의 복과 하늘의 행복, 물질적인 행복과 정신적이며 영적인 행복, 고난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 등 모두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종래의 신학의 경향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고 비판적으로 말한다. 현재적이며 물질적인 복이나 행복은 기복 신앙적이며 변영 신학적

60) 위의 책, 20.

61) 위의 책, 22. 이 부분에서 존 파이퍼의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는 주제와 만난다(존 파이퍼, 264-303).

62) 김도훈, “기쁨과 행복의 긍정적 삶(생명)의 신학,”[장신논단 Vol.49 No.4 (2017, 12) 143-163]

63) 이런 주장은 파이퍼의 책에서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기쁨』, 90-117.

이라고 배제해왔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태도는 성경적이지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물질적인 복의 선언자도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에서 김도훈 교수는 오늘의 삶의 신학은 성경에 나타난 인간과 하나님의 긍정적인 특성 즉 기쁨과 행복의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태껏 생명신학이 인간의 부정적 측면의 치유에 몰두해 왔다면 앞으로의 생명신학은 인간의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강조하는 긍정의 삶의 신학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도훈 교수는 그의 이러한 신학적 작업을 ‘긍정신학’이라 이름한다. 긍정신학은 “현대신학의 한 흐름으로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희망 등의 신학의 긍정적 주제들을 다루며, 삶의 긍정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이런 관점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신학의 주제들과 사상들과 체계들을 긍정신학적 방법으로 재해석하고 새롭게 모색해보려는 시도”⁶⁴⁾이다. 그가 주장하는 긍정신학이란 “과거와 전통, 그리고 타학문, 무엇보다 성서학과의 대화를 통하여 신학의 잃어버린 측면들을 복원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신학적 시도이다.”⁶⁵⁾ 김도훈에 의하면 원래부터 기쁨이나 행복이 전형적인 신학적 주제이자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다. 그래서 그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용서와 위로와 같은 기독교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을 간단히 말해 긍정신학 혹은 긍정의 신학이라고 한다.”⁶⁶⁾

현황이란 제하에서 존 파이퍼와 볼프, 그리고 김명용의 기쁨의

64) 김도훈, “긍정신학의 최근 연구 동향,” 『장신논단』 제 51-5호(2019.12), 225(신주현의 논문 139쪽, 각주 619)

65) 김도훈, “통전적 신학, 온신학, 그리고 긍정신학,” 김명용 외 15인, 『온신학의 지평』(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7), 138.(신주현의 논문 139쪽, 각주 618)

66) 김명용 외 15인, 『온신학의 지평』, 138-139.(신주현의 논문 40쪽, 각주 620)

신학과 김도현의 긍정신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제 기쁨의 신학의 근거인 성경에서의 언급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근거

우리는 기쁨의 신학의 근거를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에서 찾고자 한다. 과연 성경이 ‘기쁨’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빈도나 강도가 ‘기쁨의 신학’을 말할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쁨의 신학을 주창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쁨”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한다.⁶⁷⁾ 구약에서 시편 16장 11절을, 신약에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표본구절로 택하여 성경에서의 기쁨에 관한 언급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구약에서

시편 16장 11절을 표본 성구로 택할 수 있겠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 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옛 성도 다윗은 주께서 자신에게 보이실 ‘생명의 길’에 대하여

67) 박성일, 38. “기쁨”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한다. 신주현은 그의 논문에서 아예 한 장을 “기쁨의 신학의 성서적 근거”로 할애하였다(11-31면). 신주현은 스트로운(B. A. Strawn)이 편집한 『성경과 행복추구』(*The Bible and the Pursuit of Happiness*)와 볼프(M. Volf)와 크립(J. E. Crisp)이 편집한 『기쁨과 인간의 번영』(*Joy and Human Flourishing*)을 주로 인용하였다.

이렇게 노래하였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과연 다윗의 걸음이 그러하였던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이 지 않는 면이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그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약에서 이에 상응하듯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3, 14).

그런데 그 길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이해하여야 하겠다.

3.1.1 충만한 기쁨(시 17:15, 21:6, 36:8, 65:4)

관주로 연결되어 있는 몇 구절을 살펴보자.

(1) “그(왕)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시 21:6)

(2)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시 65:4)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주님 중심의 기쁨이다. 그것도 “충만한” 기쁨이다.

3.1.2 영원한 즐거움(시 36:8)

역시 관주로 연결되어 있는 몇 구절을 살펴보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시 36:8)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도 역시 주님 중심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양에 있어서는 “충만”이고 시간에 있어서는 “영원”이다.

‘생명의 길’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영적 이치는 다윗의 이런 표현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영적 사실이다. 처음부터 주께서 인생들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길’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다. 창세부터 그러하였고, 현재도 그러하며, 영원토록 그러할 것이다. 창조 시에도 그러하였고, 구속 이후에도 그러하고, 영원토록 그러할 것이다.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이 도래하고, 즐거움은 사라지고 괴로움이 지배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와 아울러 구약 곳곳에서 보이는 ‘기쁨’을 담은 구절들을 유심히 살필 수 있겠다.⁶⁸⁾

3.2. 신약에서

앞서 소개한 여러 신학자들이 기쁨과 관련하여 언급한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표본 성구로 택할 수 있겠다.

“내(예수님)가 이것을 너희(제자들)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

68) 김명용이 요절로 내세운 시편 30장 11절이나, 하박국 3장 18, 19절이나, 스바냐 3장 17절도 유심히 살펴볼 구절들이다.

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예수님의 기쁨과 제자들의 기쁨이 대조적으로 열거되고 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그들이 가졌던 기존의 기쁨 말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다. 이후 제자들의 일생은 자신들이 가졌던 기존의 기쁨은 비워내고 스승이신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 가는 일생이었으리라.⁶⁹⁾

3.2.1 주님의 기쁨(비교. 고후 2:3)

주님과 제자들의 충만한 기쁨: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13)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이 앞서 구약에서 읽었던 “충만한 기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2.2 제자들의 기쁨(16:24, 17:13; 요일 1:4; 요이 12)

제자들의 기쁨을 명시한 구절을 살펴보자. 여기에도 ‘충만한 기쁨’이 언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4)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와 기도 응답에서 가지는 기쁨을 언

69) 술라터는 이 대목에서 기쁨의 질적 차이를 언급하고 그 차이가 낳는 성경 해석과 적용의 차이까지 말하였다.

급하신다. 생각을 확장하여 ‘제자들의 기쁨’에서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의 경우 등을 살펴 볼 수 있겠다. 먼저 요한 사도의 경우 요한복음에서 기쁨에 대한 다양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요 15:11, 16:20, 22, 24, 17:13). 요한서신에서 역시 ‘기쁨’을 언급한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충만’한 기쁨이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일 1:4)

요한 삼서에서는 ‘심히 기뻐함’을 말한다. 즉 ‘충만한 기쁨’이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요삼 3,4)”

다음으로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기쁨이다. 사도행전과 베드로전후서를 살펴보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행 5:41)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다니 질 다른 기쁨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8, 9)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하였다. 이

역시 질 다른 기쁨이다.

바울 서신에서도 역시 기쁨을 읽을 수 있다. 특히 빌립보서에
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빌 1:4, 5)*

*“...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빌 1:18b)*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빌 2:17, 18)*

역설적인 기쁨이다.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기뻐하는 기쁨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빌 3:1, 살전 5:16)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짝이 남이니 ...”(빌 4:10)*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 4:4)⁷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을 말하고 있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사

70) 과연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다. 감옥에 있는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
을 향하여 기쁨을 명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우리는 장을 달리하여 교
회사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산 증언들을 살필 수 있겠다.

도의 표정이 과연 어떻게 생각해보게 된다.

3.2.3 성도들의 기쁨

기쁨은 이제 제자들을 넘어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미친다. 먼저 요한서신에서 보자. 성도들에게 있을 “충만”한 기쁨을 언급한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이 12)

주님의 기쁨은 이처럼 제자들에게 멈추지 않고 제자들을 넘어 성도들에게 전달된다.

다음으로 바울서신에서의 언급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항상’ 기뻐함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기쁨의 신학’의 근거로 성경에서 ‘기쁨’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았는데, 구약에서 시편 16편 11절을 신약에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표본구절로 택하여 성경에서의 기쁨에 관한 언급을 살펴보았다. 옛 성도 다윗은 생명의 길을 말하면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언급한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가지신 그 기쁨에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 또한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원하였다. 이처럼 기쁨은 성경의 주요 주제이며 관심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쁨’과 관련하여 성경 본문에 관한 관찰은 앞으로 도 폭 넓게 진행해야 할 일이다.

4. 의의

‘기쁨의 신학’의 의의로 시대적 요청과 성경의 관심 복원 그리고 네 가지 주의를 말하고자 한다.

4.1. 시대적 요청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다. 하나는 절망과 위기의 시대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신학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현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신학이라는 점이다. 최근에 지구상의 인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재앙을 겪었다. 코로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2022.2.- 현재)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사이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2023.10.7.- 현재)도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환경 재앙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

71) 성경 각 권에서 ‘기쁨’에 대한 언급을 살펴볼 수 있겠다. 최근 한 연구에서 전도서에서의 ‘심하’(즐거움)에 대한 관찰도 “기쁨”에 대한 좋은 통찰을 주고 있다. 인생 전부가 ‘아말’(수고)과 ‘헤벨’(헛됨)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심하’(즐거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김선종, “전도서의 기쁨 -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의 사이”(온신학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또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기쁨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옛 성도 다윗이 “한 가지 일(아하트)”로 언급한 “여호와와의 즐거움 안에서(베노암 아도나이) 이상을 보며”라는 구절도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카라 엔 프뉴마티 하기오)이라”는 롬 14:17의 말씀도 유심히 살펴야 하겠으며, 히 1:9에서의 “즐거움의 기름”(엘라이온 아갈리아제오스)이 시편 45:8의 “즐거움의 기름”(세멘 싸쏬)과 이사야 61:3의 “기쁨의 기름”(세멘 싸쏬)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과 이런 내용들이 “성령”과 연관된 것임을 확인하고, 히 12:2에서의 “그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마주 대하여”(안티 테스 프로케메네스 아우토 카라스)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겠다.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은 끄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권한다.

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는 “기쁨”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작지 않은 위로를 줄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신학은 모더니즘적, 수도원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기독교 메시지의 본질적인 측면을 상실하였다.⁷²⁾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이성 중심이기보다는 다분히 감성 중심인 기쁨의 신학은 현대인과의 소통을 보다 부드럽게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도록 한다.

4.2. 성경의 관심 복원

신주현은 자신이 쓴 논문의 공헌점으로 바로 이 점을 들었다. “신학이 그동안 전개하지 못했던 기쁨이라는 주제를 복원시킨 것이라고.⁷³⁾ 이에 신학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신학의 주제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조심스러운 것은 ‘기쁨’이 성경의 유일 관심인 듯이 말하는 것이다. 언약, 구속, 하나님 나라 등 다양한 주제들과 함께 역시 강조되어야 할 하나의 주제로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4.3. 주의

네 가지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첫째는 중심 이동 현상에 대한 우려이다. ‘

기쁨’이라고 할 때에 누구의 기쁨인가 하는 문제이다. 본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성부의 기쁨이 성자의 기쁨이 되고, 성자의

72) 신주현, 142.

73) 위의 책, 142.

기쁨이 사도의 기쁨이 되고, 사도의 기쁨이 성도들의 기쁨이 된다. 그런데 ‘기쁨’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 그 중심이 어느샌가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간 느낌이다. 존 파이퍼가 굳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한 데는 이유가 없지 않다.⁷⁴⁾

둘째는 주객전도 현상에 대한 우려이다.

기쁨을 우리의 논의의 주제로 삼는다 해도 기쁨을 위한 기독교이 기보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기쁨을 주제로 여러 종교지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추구하는 노력보다는 기독교 신앙이 갖는 고유의 기쁨을 모색하고 드러내고 누리고 확산하여야 하겠다.

셋째는 양자택일 현상에 대한 우려이다.

감성을 내세우며 이성을 배제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위에서 언급한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하여 지금이 감성의 시대라고 하여 이성을 배제하는 감성이 되기보다는 이성을 보완하는 감성이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이천 년 교회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건전한 교리체계를 마치 없는 듯이 여기고 감성 운운하는 것은 건전한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는 기쁨 일변도의 배타적인 경향에 대한 우려이다.

성경에서 기쁨만 찾아내어 성경은 마치 기쁨만 말하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도 있지만, 동시에 ‘근심하시’는’ 하나님,

74) 우리 시대에 이 면을 목회현장에서 잘 구현한 분으로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원로목사를 들 수 있겠다. 유기성,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서울:규장, 2023). 지난 24.10.10.에 발표한 김선권 교수의 "갈뻡의 기쁨의 신학"에서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대조한 것도 바로 이런 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탄식하시는’ 하나님, ‘후회하시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 등에 관한 진술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과 강조는 귀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미 앞서 강조되었던 하나님의 다른 면들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보완하는 면에서 기능하여야 하겠다.

‘기쁨의 신학’의 의의로 시대적 요청과 성경의 관심 복원 그리고 기쁨의 중심 이동과 주객전도 현상 및 양자택일 현상 그리고 기쁨 일변도의 배타적 경향을 주의하라고 말하였다.

맺음말

‘기쁨의 신학 개괄’이란 제하에 이제까지의 논의, 현황, 성경에서의 언급 그리고 의의의 순으로 다루었는데, 이제까지의 논의에서는 스쿠걸, 바흐, 술라터, 토레이, 루이스, 바르트와 몰트만의 ‘기쁨’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았다. 현황에서는 파이퍼와 볼프, 김명용과 김도현의 논의를 언급하였다. ‘기쁨의 신학’의 근거로 성경에서의 언급을 살펴 그 타당성을 살펴보았으며, ‘기쁨의 신학’의 의의로 시대적 요청과 성경의 관심 복원 그리고 네 가지 주의를 말하였다.

우리 앞서 기독교 신학과 신앙에서 행해진 ‘기쁨’에 대한 관심을 계속하여 발굴해 내는 것은 귀한 일이다. 동시에 성경 본문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찾아내어 드러내는 일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논의를 하는 우리 자신에게 성경에서 언급한 그런 기쁨이 실제로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 - 성부의 기쁨, 성자의 기쁨, 성령의 기쁨. 성자 예수님의 기쁨, 제자들의 기쁨 그리고 성도들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드러나고 증거 되어야 할 것이다. 옥중에서 기쁨

을 역설한 바울 사도의 얼굴에 나타났을 그 기쁨이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도훈, “기쁨과 행복의 긍정적 삶(생명)의 신학,” 「장신논단」 49:4 (2017. 12.) 143-163.
- 김도훈, “통전적 신학, 온신학, 그리고 긍정신학,” 김명용 외 15인, 『온신학의 지평』.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7.
- 김도훈, “긍정신학의 최근 연구 동향,” 「장신논단」 제 51-5호 (2019. 12.).
- 김명용 외 15인, 『온신학의 지평』.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7.
- 김명용, “21세기 세계 교회의 위기와 극복 방향,”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위원회 세미나 자료집」(2024년 4월 26-27일, 인천 네스트 호텔), 22-38.
- 김명용, “기쁨의 신학,” 「온신학회 10주년 기념 2024년 온신학회 여름학술대회」(2024년 8월 19-20일, 대구 호텔인터볼고호텔).
- 박성일, 『헤아려 본 기쁨』. 서울: 두란노, 2021.
- 신주현, “칼 바르트와 위르겐 몰트만에 나타난 기쁨의 신학 이해.”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2021).
- 유기성,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 서울: 규장, 2023.
- 유장환, “무신론과 무감각에 맞서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의 신학으로,” 「기독교사상」(2017. 11.), 215-220.
- 한승홍, “미로슬라브 볼프, 그의 신학은 무엇인가?” (2018.06.22.).
- 한제호, “슬라터의 기쁨의 신학,” 「들소리신문」.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own2425&logNo=221728669819>.
- Moltmann, Juergen. 박종화 역, 『살아 계신 하나님과 풍성한 생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Neuer, W, Schlatter, Adolf. Wuppertal: R. Brockhaus Verlag, 1988, 한제호 역, 『아돌프 슬라터』. 서울: 자연, 2002.
- Piper, John. The Pleasures of God, 이상준 역, 『하나님의 기쁨』. 서울: 두란노, 2020.

- Piper, John. The Pastor as Scholar & The Scholar as Pastor: Reflections on Life and Ministry, 전광규 역, 『신학자로서의 목사 & 목사로서의 신학자』.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 Schlatter, A. Dass Meine Freude In Euch Sei. Stuttgart: Calwer Verlag, 1927.
- Schlatter, A. The Theology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Baker, 1999.
- Scougle, Henry. God's Abundant Life, 김태곤 역,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2024.
- Torrey, R. A. 김성봉 역, 『예슈아』. 서울: 무실, 1993.
- Volf, M. "Theology of Joy: N. T. Wright with Miroslav Volf" (볼프가 N. T. 라이트를 인터뷰한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2u3PGZc8VsU>.
- Volf M. & Crisp, Justin E. ed., Joy and Human Flourishing: Essays on Theology, Culture, and the Good Life. Fortress Press, 2015.

[Abstract]

A Survey on the Theology of Joy

Sung Bong Kim

(former theological graduate
school director of Anyang Uni.)

Under the title of 'A Survey of the Theology of Joy,' the topics are covered in the following order: previous discussions, current status, references in the Bible, and its significance. In the discussions so far, this paper looked at the interests in 'joy' of Scougal, Bach, Schlatter, Torrey, Lewis, Barth, and Moltmann, while in the current status section, this paper mentioned the discussions of Piper and Volf, Kim Myeong-yong, and Kim Do-hyeon. As the basis for the 'theology of joy', the paper looked at references in the Bible to examine its validity, and as the significance of the 'theology of joy', the paper discussed the demands of the times, the restoration of interests in the Bible, and four points of caution.

"As the basis for the theology of joy, the paper looked for references to 'joy' in the Bible. the paper chose Psalm 16:11 in the Old Testament and John 15:11 in the New Testament as sample verses to examine references to joy in the Bible.

The Bible mentioned full joy and eternal joy when speaking of the way of life, and Jesus wanted his disciples to participate in the joy he had, and the disciples also wanted the saints to do the same. This paper was able to confirm that joy is a major theme and concern of the Bible. The demands of the times were stated in two ways: one is theology that can provide comfort in times of despair and crisis, and the other is theology that can communicate with modern people in the postmodern era. In restoring the interest in the Bible, theology has restored the theme of joy that it had not been able to develop until now, and thus theology has secured the need to recover joy and establish it as a theme of theology. The caution was drawn to four things: First, the concern about the phenomenon of center shifting; Second, the concern about the phenomenon of reversal of subject and object; Third, the concern about the phenomenon of choosing between the second; And Fourth, concern about the exclusive tendency of joy.

Key Words

Joy, H. Scougal, C. S. Lewis, J. Piper, M. Volf

❧ 제2강연 발제 ❧

기쁨의 영성, 기쁨의 신학 구약신학적 고찰

발제자 : 왕대일 박사

■ 왕대일 박사 프로필 ■

- ▲ 미국 클레어몬트대(Ph.D.)
- ▲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석사(Th.M.)
- ▲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사(B.Th.)
- ▲ 하늘빛교회 담임목사
- ▲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약학 명예교수





기쁨의 영성, 기쁨의 신학 구약신학적 고찰

왕 대 일 박사(현 감신대 명예교수, 본원 학술위원)

- 목 차 -

1. 여는 말. 구약의 기쁨, 그 어의(語義)의 넓이와 깊이
2. 구약의 기쁨
 - 2.1. 눈물과 기쁨, 슬퍼할 때와 기뻐할 때(전 3:1-4)
 - 2.2. 눈물 이후의 기쁨(시 126:5-6)
 - 2.3. 눈물을 흘려야만 함에도 기뻐하기(합 3:16-18)
 - 2.4. 눈물과 함께 기뻐하기(느 8:8-12)
 - 2.5. 눈물 너머에서 기뻐하기(사 65:17-20)
3. 맺음말. 기쁨의 영성·기쁨의 신학

1. 구약의 기쁨, 그 어의(語義)의 넓이와 깊이

신앙은 삶을 표현하는 무늬다. 그 무늬를 헤아리게 하는 성서적 언표, 성경적 언어는 여럿이다. 그 가운데서도 기쁨은, 요한 세바스치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의 「예수, 나의 기쁨」(Jesu, meine Freude, 1723년)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로고스(logos)와 파토스(pathos)와 에토스(ethos)의 주제로 자리 잡았다.¹⁾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세상살이의 지평선이 암울하기가 그지없지만, 그리고 기뻐하기보다는 탄식·탄원할 수밖에 없는 생존의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 땅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을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좌표로 삼아야 한다고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²⁾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길도 기

1) 김성봉, “기쁨의 신학 개괄,”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위원회 세미나 자료집」(2024년 4월 26-27일, 인천 네스트 호텔), 22-38. 이 글에서 김성봉은 바흐(Johann S. Bach)에서 시작하여 슈라터(Adolf Schlatter), 토레이(Reuben A. Torrey), 루이스(C. S. Lewis), 칼 바르트(Karl Barth), 몰트만(Jürgen Moltmann), 볼프(Mirislav Volf)를 거쳐 김도훈, 신주현에 이르는 “기쁨의 신학”을 점검하였다.

2) 우제국, “기쁨의 신학,”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4(1990.12), 148-169; 김도훈, “기쁨과 행복의 긍정적 삶(생명의 신학),” 「장신논단」 49:4 (2017.12), 143-153; 김도훈, “행복, 기쁨, 플러리싱(Flourishing), 그리고 교회: 신학과 긍정심리학과의 대화에 기반한 긍정교회론의 시도,” 「선교와 신학」 42(2017), 71-99; 박형국, “기쁨의 신학적 서사에 대한 소고,” 「신학과 사회」 31:4 (2017), 45-75; 김명용, “21세기 세계교회의 위기와 극복 방향,”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위원회 세미나 자료집」(2024년 4월 26-27일, 인천 네스트 호텔), 6-21; 최근 열린 「온신학회 10주년 기념 2024년 온신학회 여름학술대회(2024년 8월 19-20일, 호텔인터볼고 대구)」에서도 기쁨의 신학과 관련한 세 논문이 발표되었다. 김명용, “기쁨의 신학(A Theology of Joy),” 최태영, “예수

쁨의 신학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³⁾

구약에서 기쁨을 지칭하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두개이다. 동사 ‘사마흐’(שמח)와 거기에서 파생한 명사 ‘심하’(שמחה)이다. 이 둘은 헬라어 ‘하이로’(χαίρω)와 거기에서 비롯된 명사 ‘하라’(χαρά)와 짝을 이룬다.⁴⁾ 물론 기쁨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낱말은 여럿이다. ‘길’(גיל), ‘라난’(רנן), ‘수스’(שׂשׂון), ‘알라쯔’(עֲלָצָה) 등은 다 기쁨·즐거움을 표현하는 언어군에 든다. 그런데도 히브리어 ‘심하’와 ‘사마흐’에 주목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 두 글자가 기쁨 감정을 지닌 마음의 상태를 지칭하는 낱말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어의론(語義論)에서 보면 히브리어 ‘심하’와 헬라어 ‘하라’는 그 지향점이 다르다. 히브리어 ‘사마흐’와 ‘심하’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으면서도 기쁨의 현장으로 성(聖)과 속(俗)을 다 아우르지만(창 31:27; 신 24:5; 삿 19:3; 왕하 11:20),⁵⁾ 신약에서 헬라어 ‘하이로’와 ‘하라’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가리킨다(마

의 기쁨- 감추인, 최상의, 영원한 기쁨.” 김선종, “전도서의 기쁨 -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의 사이.”

- 3) 김명용, “21세기 세계교회의 위기와 극복 방향,” 12-16; 김명용, “기쁨의 신학(A Theology of Joy),” 「온신학회 10주년 기념 2024년 온신학회 여름학술대회(2024년 8월 19-20일, 호텔인터볼고 대구)」자료집, 1-27.
- 4) Eunhy Lee, “Joy[samakh, simikhah, χαίρω chairō, χαρά chara,”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3, 417-418.
- 5) 히브리어 명사 ‘심하’(שמחה, 기쁨)는 구약에서 93회(창 31:27; 민 10:10; 신 28:47; 삿 16:23; 삼상 18:6; 삼하 6:12; 왕상 1:40; 대상 12:40; 15:16, 25; 29:9, 17, 22; 대하 20:27; 23:18; 29:30; 30:21, 23, 26; 느 8:12, 17; 12:27; 12:27; 스 3:12, 13; 6:22 등), 동사 ‘사마흐’(שמח, 기뻐하다)는 150회 나온다(레 23:40; 신 12:7, 12, 18; 14:26; 16:11, 14; 24:5; 27:7; 38:18; 삿 9:13, 19[x2]; 19:3; 삼상 2:1; 6:13; 11:9, 14; 19:5; 삼하 1:20; 왕상 5:7; 왕하 11:20; 대상 29:9[x2] 등). 시 4:7; 126:5; 잠 10:1; 29:17; 전 10:19; 사 12:3; 29:19)

25:14-23; 요 3:29; 15:11; 롬 14:17; 갈 5:22).⁶⁾ 신약에서 기쁨은 그 방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에 찍힌다. 기쁨을 뜻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어의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쁨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다름이 내재하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 다름은 구약이 ‘하나님 신학 안에서 기독론’(Theological Christology)를 다루지만, 신약은 ‘기독론 안에서 하나님 신학’(Christological Theology)을 증언한다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⁷⁾

신약성경이 증언하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얻고 누리는 기쁨이다. 그 기쁨은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구현된다(롬 14:17; 빌 4:4). 그런 기쁨의 원천이, 성서신학적으로는, 구약의 기쁨이다. 구약에서 기쁨은 사람 마음의 감정(emotion)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주어지는’ 기운(spirit)이다. 구약에서 기쁨의 마당은 일상이지만, 그 기쁨의 동력은 일상의 자리가 아닌 초(超)일상의 자리에서 얻는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시 4:7).*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시 43:4).*

6) 장흥길, “신약성경의 ‘기쁨,’ χαρά, χαίρειν을 중심으로,” 『성서마당』 120(2016. 12), 124-128.

7) “Theological Christology”와 “Christological Theology”는 샌더스(James A. Sanders)가 구약과 신약을 성경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용어다. J. A. Sanders, *From Sacred Story to Sacred Text: Canon as Paradigm*(Philadelphia: Fortress, 1987; Wipf and Stock, 2000), 41-42. 성서신학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는, 왕대일, 『구약신학』(개정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105-111.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시 122:1).

구약에서 기쁨은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채워주시는 은총이다(시 4:7).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다. 그런 기쁨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자리가 예배다. 구약의 예배가 절기이자 잔치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을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절기의 질서로 구현하기 때문이다(민 10:10; 신 16:11-15; 대하 30:25-26; 예 6:22; 시 95, 98). 예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온 역사의 주님, 만백성의 목자이신 것을 확인하고 다짐하면서 기뻐한다(시 96:10-13; 97:1; 98:4-9). 거기에서 기쁨은 감사의 마중물이 되고 장차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영적 실체가 된다.

구약에서 기쁨은 사람들이 더불어 누리는 감정이다(신 12:7; 16:11, 15; 30:9-10). 기쁨에는 사회성이 있다. 더불어서 기뻐하기, 함께 기뻐하기가 기쁨의 속성이다. 그렇지만 더불어 기뻐하기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에 있다. 기뻐하기의 속내는 본래 신학적이다.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슥 3:17).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격정적으로(**בְּשִׂמְחָה**) 기뻐하신다(**שִׂמְחָה**). 큰 소리로 즐거이 노래하시면서 기뻐하신다(**בְּרִנָּה ... בְּשִׂמְחָ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기에 우리가 기뻐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신약에서 구체화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므로(요 1:14),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에(요 15:11), 천국을 발견하고 누림으로(마 13:44), 메시아가 오심으로 만백성에게 큰 기쁨의 시대가 열렸다(눅 2:10-11).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의 연합을 통해 고통을 초월한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담아내었다(빌 3:1; 4:4).

구약에서 기쁨은 일상의 표정이다. 신약의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표정을 기쁨으로 강조할 때(롬 14:17; 15:13; 갈 5:22; 살전 1:6) 구약의 기쁨은 몸짓에 주안점을 둔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한다(전 9:9; 비교, 잠 5:18), 지혜로운 자식은 그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잠 23:24-25),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전 2:24; 9:7; 비교, 시 104:15). 일상의 무늬를 기쁨으로 장식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사울을 여호와 앞에서 왕으로 삼고 제물을 드렸을 때 크게 ‘기뻐하였고’(삼상 11:14-15), 다윗은 언약궤를 ‘기쁨’으로 메고 시온성으로 올라갔다(삼하 6:12).

구약에서 기쁨은 몸의 언어로 나타난다. 몸은 마음을 담고 있기에 마음으로 느끼는 기쁨은 몸의 동작으로, 말하자면, 채우고, 먹고, 마시고, 지니고, 즐거워하는 몸짓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레 11:44) 하라고 가르친다. 히브리어의 ‘심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글자 중 하나다. 이런 이해는 신약의 가르침과는 결이 다르다. 신약에서는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소리치는 몸짓이 달라진다(마 15:17-20).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7)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동일한 “만나”가 구약에서는 일상의 먹거리이지만(출 16:4, 35), 신약에서는 생명의 양식(요 6:33-35)이란 점도 구·신약의 사상계를 헤아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차이를 드러내는 글자 가운데 하나가 헬라어의 “하라”다. 하지만, 기억하자.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이 내세우는 하나님의 통치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 펼쳐지는 현장은 어디까지나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 땅이다.

구약의 기쁨에는 일상에서 일상 너머로 뻗어나가려는 열정이, 일상 너머에서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감격이 있다. 구약에서 기쁨의 원천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초(超)일상의 은총을 체험한 자가 일상 너머의 시공간을 떠나 일상 안에 내주하시는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무대를 기쁘게 꾸밀 수 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시 21:1).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사 25:9).

구약에서 일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일을 축하하는 무대다. 밤·어두움·슬픔·시련이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하루를 맞이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가락에 자기를 조율하는 자는 그 일상이 진정 기뻐하는 트랙이 된다. 죄악·허물·잘못이 있는 인생살이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

는 그 일상의 그릇에 기쁨을 담을 수 있다(시 30:5; 51:8, 12). 현실에서는 칼·기근·싸움·전염병 등이 버티고 있지만, 연약한 자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일상이 나날이 기뻐하는 현장이 된다(시 4:7; 21:6-7; 31:7; 90:4).

구약에서 기쁨의 실체는 명사 ‘기쁨’(joy)보다는 ‘기뻐하기’(rejoicing)라는 동사에 들어 있다. 구약의 정언(正言)은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쁨을 삶의 내용으로 구현하라고 가르친다.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기쁨의 실상은 일상이라는 현실이다. 문제는 현실에서 기뻐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기쁨의 반대인 고난·시련·재난·재앙·사고·분노·심판·슬픔 등이 일상의 현실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렘 15:16-17).

예레미야의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 밖에서 마주하는 시련 사이에 있는 괴리를 대변하는 사례다. 암울하고, 답답하고, 서글프고, 분노로 들끓는 현실에서 기쁨·감사·감격·찬양·고백으로 나아가기, 넘어서기, 들어서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가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살아가기의 무늬를 기쁨으로 꾸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쁨의 신학을 구약의 언어로 증언하는 노력은 어의론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구약의 글말로 기쁨의 영성을 세워가는 작업은 기쁨과 슬픔이 마주 버티고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쁨은 그 반대말인 슬픔과 더불어 살피야 한다.⁸⁾ 기쁨과 슬픔의 줄다리기에서 구약은 기쁨의 현상을 여러 갈래로 설명한다. 구약에서 기쁨의 표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기쁨의 내면은 중층적이다. 구약은 기쁨의 현상학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기쁨의 경험에 관한 인식을 여러 겹으로, 여러 차원으로 증언한다. 그런 인식의 폭과 깊이를 헤아리지 않고서는 구약의 기쁨은 기독교 신앙의 좌표와 이정표가 될 수 없다.

2. 구약의 기쁨

2.1. 눈물과 기쁨, 슬퍼할 때와 기뻐할 때(전 3:1-4)

이제 우리 논의는 기쁨의 어의에 관한 사색에서 기쁨을 다루는 성서 본문의 해석에 들어서려고 한다. 그 본문이 외치는 증언의 정당성·타당성(validity)을 신학의 문법에 따라서 밝히고, 풀고, 새기려고 한다. 기쁨을 증언하는 특정 본문의 소리가 기쁨을 선포하는 여러 본문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우선, 우리 눈에 크게 들어오는 본문은 전도서다. 그 이유는

8) Gary A. Anderson, *A Time to Mourn, A Time to Dance: The Expression of Grief and Joy in Israelite Religion*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91), 1-139. 앤더슨이 말하는 슬퍼하는 때와 기뻐하는 때는 '슬픔의 의례'와 '기쁨의 의례'다. 그의 논의는 특정 공동체가 겪는 "슬프거나 기쁜 감정이란 그 행동 요소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의례적(ritual) 체험이다"라는 이해에서 출발한다(2쪽). 이와는 달리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를 전도서의 모티브로 보면서 기쁨과 슬픔의 대조를 전도서의 글 말로 추적하는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M. V. Fox,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Up. A Rereading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Cambridge: Wipf & Stock Publishers, 1999).

단순하다. 전도서의 표정이 기뻐하기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전도서는 처음과 끝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הָבֵל הָבֵלִים הָבֵל הָבֵל, 전 1:2; 12:8)로 시작하고 닫는다. 전도서를 관통하는 탄식은 헛되다는 소리다. 세상살이란 덧없고, 허무하며, 허망하다는 외침이 전도서에서는 시종일관 큰 울림을 이루고 있다.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다(אֵין כֵּל הַדָּבָר הַחֲדָשׁ תַּחַת הַשָּׁמַיִם, 전 1:9b)” 이런 말로 삶의 실상과 현실의 현상을 비관적으로 인식한다.

전도서의 시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 책의 내용(전 1:1, 12)에 기반하여 주전 10세기로 보기도 하고, 전도서의 히브리어가 포로 후기 시대 아람어의 용어, 어법, 용례 등을 활용한 글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주전 4세기 페르시아 시대로 보기도 하며,⁹⁾ 전도서의 말글이 유대 사상이 그리스 철학과 마주치던 시기의 열매인 것을 참작해서 주전 3세기로 보기도 한다.¹⁰⁾ 전도서 텍스트를 역사적으로 관찰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해 아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성찰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이래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해낼 수 있다. 다 같은 땅에 살면서도 세상사의 경험을 신명기가 가르친 인과응보의 질서로 피력할 수도 있고, 거기에 반기를 들 수도 있다. 구약의 잠언이 전자에 속한다면, 전도서는 후자에 속한다. 잠언과의 관계에서 전도서가 토로하는 삶은 『지혜의 종말』(The End of Wisdom)이지만,¹¹⁾ 전도서 글말의 분위기를 반드시, 꼭,

9) C L Seow, “Linguistic Evidence and the Dating of Qohelet,” *JBL* 115 (1996) 653-54.

10) 안근조, 『히브리 지혜전승의 변천과 기독교의 기원』 (서울: 동연, 2016), 89-113; 비교, 최종원, “복서 셈어 문학과 비제사장계 문학사 관점에서 바라본 전도서에 대한 새로운 연구,” 『구약논단』 30:1 (2024), 209-248. 최종원은 유대사상이 헬레니즘과의 조우하던 당시 복서 셈어 문화권에 흐르던 유대사상의 전통 지혜가 전도서 속에 담겨 있다고 본다.

11) Martin A. Shields, *The End of Wisdom: A Reappraisal of the Historical and Canonical Function of Ecclesiastes* (Winona Lake:

잠언 이후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전도서의 글말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전도자가 헛됨을 기쁨과 반대되는 자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도서 해석은 전도서의 화두인 히브리어 ‘헤벨’(הֶבֶל)이 무엇을 뜻하느냐를 놓고 벌인 긴 토론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¹²⁾ 기독교 신앙공동체는 4세기 라틴어 성서가 그 글자를 ‘vanitas’로 번역한 이래 ‘헤벨’을 ‘vanity’(헛됨)로 수렴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 전도서에서 이 글자가, 예컨대, ‘바람을 잡으려는 것’(전 1:14, 17; 2:11, 17, 26; 4:4, 16; 6:9)과 동의어로 쓰인다는 사실은 히브리어 ‘헤벨’을 무모하거나, 무의미하거나, 무익한 것을 뜻하는 말로도 수렴하게 한다.

전도서의 용어 ‘헤벨’은 전도자의 글말에서 기쁨의 반대말이다. 어의적으로는 기쁨의 반대말은 ‘허무’나 ‘헛됨’이 아니다. 히브리어 ‘심하’의 반대말은 히브리어 ‘헤벨’이 될 수 없다. 헬라어 ‘하라’의 반대말도 ‘마타이오테스’(ματαιότης, LXX 전 1:2)가 아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거나 슬픔의 부류에 드는 말들이다. 예컨대 탄식, 시련, 고통, 아픔, 슬픔, 회의(懷疑), 울음 등이 기쁨의 반대말에 든다. 그런데도 전도서는 ‘헛됨’과 대조하여 ‘기쁨’에 관한 글말들을 쏟아놓고 있다(전 2:8, 10, 24, 26[x2]; 3:12; 4:16; 5:4, 20; 7:14, 26; 8:15(‘희락’); 9:7[x2]; 10:19; 11:9).¹³⁾

Eisenbrauns, 2006), 1-250.

12) 전도서의 “헤벨”에 관한 논의는 참 많다. 예를 들어 홍성혁, “전도서 속에 나타난 ‘헤벨’의 아이러니와 그 수사적 기능,” 「구약논단」 17:4(2011), 33-56을 보라.

13) 구약에서 ‘기뻐하다’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낱말은 히브리어 동사 ‘사마흐’와 그 방계 언어들인데 모두 260회 정도 거론된다. 그 가운데 110회 정도가 구약의 성문서에 나오는데, 그 절반가량이 시편에, 그 1/4가량이 잠언에, 역대기에 25회, 전도서에 17회 나온다. 책별로는 시편에서 그 글자가 가장 많이 나오지만, 책당 길이로 따지면 그 빈도수에서 ‘기뻐하다’와 관련된 낱말이 가장 높게 나오는 책은 전도서다. 박정관, “구약성경의 기쁨,” 「성서마당」 120(2016), 120.

전도서에 소개된 ‘헛됨과 기쁨의 현상학’은 중요한 논의 과제다. 전도서에 헛됨과 기쁨이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종의 모순이나 아이러니다. 전도자가 시종일관 인생사란 헛되다고 외치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기쁨을 누리는 삶이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도서의 기쁨을 신학적으로 헤아리는 작업의 디딤돌이 된다. 전도서에서 병행하는 헛됨과 기쁨의 현상은, 또는 헛됨의 프레임 안에 자리 잡은 기쁨의 현실은, ‘전도서의 모순성,’ 즉 세상에 내재한 삶의 부조리와 모순을 깨닫게 하는 은유가 된다.¹⁴⁾ 헛됨과 기쁨이 한 무대 위에, 한 시공간 안에, 동시에 출현하고 있는 현상은 정녕 모순이다. 그 모순성의 뿌리는 창세기 1-3장에 반영된 창조 세계의 명암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¹⁵⁾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도서에 표명된 헛됨과 기쁨의 모순은 전도자가 연주하는 헛됨과 기쁨의 이중주로 들어야 한다. 그 이중주에 귀를 기울일 때 전도자의 현실 인식이 허무주의나, 회의주의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전도자가 연주하는 헛됨과 기쁨의 이중주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밤과 낮이 주기적으로 교차하는 현상에 대한 경험론적 반영이다. 그러기에 전도자가 토로하는 세상살이는 헛됨과 기쁨을 양축으로 삼고 있다. 삶의 무상과 삶의 희락을 엇갈리며 토로하는 전도자의 글말에 ‘때’에 관한 가르침이 등장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

14) 김선종, “전도서의 기쁨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의 사이.” 2-4.

15) 위의 책, 3.

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전 3:1, 4, 8, 11)

전도서 3장의 ‘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사를 깨닫는 경험의 열매다. 사람이 경험하는 세상사의 현상을 서로 짝을 이루는 두 개의 때로 정리해 놓았다. 예컨대, ‘울 때가 있지만, 반드시 웃을 때가 있다’라는 깨달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는 없지만, 즉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론적으로는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는 경험론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경험론적 판단이 사람살이를 헛됨의 늪에 빠지지 않게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전도자는 인식론의 한계(헛됨)를 경험론(때)으로 넘어서고 있다. 그것을 알리는 소리가 이것이다. 범사에는 기한(기한)이 고 천하만사에도 다 때(때)가 있다(전 3:1).

히브리어 ‘제만(מן)’은 특정한 시간(appointed time)을, 히브리어 ‘에트(עַתָּה)’는 정해진 기간(period)을 가리킨다. 사람살이의 ‘기한’과 ‘때’를 안다는 것은 전도서가 내리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처방이다. 헛됨의 늪을 벗어나게 하는 전도자의 네비게이션이다. 전도서에 거론된 ‘기한과 ’때‘는, 따지고 보면, 창조신앙의 용어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시간의 질서를 가리키는 창조신앙의 언어다.¹⁶⁾ 창조주 하나님은 낮의 기한과 밤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 저녁이 지배하는 시간과 아침이 다스리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순환하고, 사람이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날(日)과 달(月)과 해(年)를 거쳐 가도록 정해 놓으셨다. 그런 시간의 리듬을 사람살이에 적용한 표현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말이다.

16) 왕대일, 『전도자의 질문, 전도서의 해답』 (서울: KMC, 2014), 88-89.

하나님의 정하여 놓으신 세상의 시간은 일정한 기한과 때에 맞춰 반복된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의 질서를 '시간의 순환'(cycle of time)으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실체(cosmic reality)는 '시간의 순환'이 아니라 '순환하는 시간'(cyclic time)이다.¹⁷⁾ 시간의 순환에 매여 있는 인생은 헛되다. 그러나 순환하는 시간을 누리는 인생은 기쁨의 트랙에 들어설 수 있다. 울 때에 웃을 때를 기대하며, 슬퍼할 때 춤출 때를 기다리게 된다. 전도자가 헤아리는 “때”에 관한 성찰은 허무함, 헛됨, 허망함, 허탄함의 한계를 뛰어넘는 처방이다. 그 처방으로 기쁨을 얻는, 기쁨을 찾는, 기쁨을 누리는 길에 들어선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 오는 것이로다”(전 2:24)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전 3:12; 비교, 8:15)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전 9:7)

무엇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이다(전 2:24). 무엇이 사람살이를 즐겁게 하는가? 살아 숨 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전 3:12).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일상의 먹거리를 하나님이 차리신 식탁으로 여기는 자세다

17) 왕대일, 『구약신학』, 323, 특히 각주 57.

(전 9:7). 호스트(host)이신 하나님이 차리신 식탁에 게스트(guest)로 초대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깨닫는 순간 인생은 기쁨의 주인공이 된다.¹⁸⁾ 전도자가 외치는 이 기쁨은 쾌락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쾌락은, 식도락(食道樂)을 포함하여, 몸의 감각을 쫓는 즐거움이지만, 전도자가 내린 처방에서 기쁨은 신앙의 본질이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이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가(전 2:24).

보기에 따라서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에 관한 전도자의 처방은 죽음을 마주 해야 하는 인생을 향하여 “오늘을 즐기라”(carpe diem)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¹⁹⁾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을 힘주어 다짐하는 전도서의 처방은 ‘인식론적 허무주의와 윤리적 쾌락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기쁨의 한계’를 토로하는 글말일 수도 있다.²⁰⁾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을 기쁨으로 ‘익히라’라는 전도자의 주문이 헛됨으로 가득한 세상사를 ‘이기게 하는’ 처방전이라는 사실이다. ‘절기’와 ‘때’에 관한 성찰이 그런 처방의 총론이라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을 기쁨으로 대하라는 전도자의 충고는 그런 처방의 실천 조항이다.

전도서의 짜임새는 전도서의 후기나 부록으로 취급되는 마지막 문단(전 12:9-14)까지 포함해서 살펴야 한다. 그럴 경우, 전도서의 최종형태는 ‘헛되다’(전 1:2-11)로 시작해서 ‘기쁨을 누리라’(전 2:24; 3:12-13; 8:15; 9:7-9)를 거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전 12:1, 13)라는 지시로 매듭짓는 모양새를 띤다. 조금 다르게 풀면, 전도서의 흐름은 세상사의 헛됨(1:2-11)으로 시작해서

18) 왕대일, 『전도자의 질문, 전도서의 해답』, 263.

19)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43(2012), 82-104.

20) 김선정, “전도서의 기쁨- 허무주의와 쾌락주의 사이,” 7-8.

‘모든 일에 때가 있다’(3:1-11)라는 깨달음을 거쳐 ‘일상의 소중함’(9:7-9)을 되새긴 다음 마침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12:13)으로 대미를 장식한다.²¹⁾ 헛되다고 여겨지는 현실이지만,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때가 있음을 깨달은 자는, 정녕 해 아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전도자가 깨달은 ‘슬퍼할 때와 기뻐할 때’에서 “때”는 시간의 흐름에 머물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질서로 승화된다. 이 시간의 질서는 태초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코스모스(cosmos)의 실체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전쟁의 참사가 연일 터지고 있다고 해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의 질서는 결단코 깨지지 않는다.²²⁾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인 땅은 사람의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간만큼은 사람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 삶이 아무리 험클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의 법칙은 험클어지지 않는다. 전도자가 외치는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의 질서에 대한 공감의 담겨 있다. 흐름에 떠밀리지 않고 질서에 조율되어 살아가는 지혜가 헛되다고 여겨지는 세상사를 헤쳐 나가게 하는 둘레길이 된다.

2.2. 눈물 이후의 기쁨(시 126:5-6)

이제 우리는 구약이 증언하는 ‘눈물과 기쁨’(Joy and Grief)의

21) 비교, 홍성혁, “전도서에 나타난 ‘헤벨’의 아이러니와 그 수사학적 기능.” 50-51.

22) 왕대일, 『구약신학』, 297, 323-324.

이중주에서 ‘눈물 이후의 기쁨’(Joy after Grief)을 고대하게 하는 본문에 들어서려고 한다. 구약이 증언하는 기쁨의 현상학 중에는 눈물과 기쁨만 있지 않고 눈물 이후의 기쁨도 있다. 앞에서 살핀 전도자의 웃을 때와 울 때는, 따지고 보면, 그 실체가 눈물과 기쁨의 이분법이었다. 그런데 구약의 글말에는 살다 보면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는 이분법적 인식만 있지 않다. 삶에서 마주치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특정 때에 따라 마주치는 현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 기뻐할 때가 있다는, 아니 눈물을 흘려야만 기뻐할 때가 있다는 통찰로도 이어진다. 그 단적인 경우가 시편 126:5-6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5-6).

시편 126장 5절은 문법상 분사 구문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뻐 소리 지르며 추수하리라” 여기서 구문의 주어는 ‘어떤 사람’이고, 구문의 서술어는 ‘이렇게 된다’이다. 이 경우, ‘눈물을 흘리며(הִשְׁקִיף)’와 ‘기뻐 소리 지르며(הִתְהַלֵּל)’가 다 같이 ‘히브리어 전치사 베(בְּ)+명사’ 형식으로 서로 대칭된다. 그렇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며”와 “기쁨으로”를, “씨를 뿌리는”과 “거두리로다”를 대조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편 126:5에서 이 구절은 대조를 이루기보다는 눈물(הִשְׁקִיף)을 흘리는 시간이 있어야 기쁨(הִתְהַלֵּל)으로 외치는 시간이 뒤따라온다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 눈물과 기쁨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기와 기뻐 소리 지르기를 그 선후 관계로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 울며 씨를 뿌리려나가

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

구문 형식은 다르지만, 같은 표현이 시편 126장 6절에도 나온다.²³⁾ 히브리어 구문 형식을 존중해서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 ‘꾸준히 나아가는 자가 있다(הָלַךְ יָלֵךְ),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 바구니를 든 채(וּבְכֹה נִשָּׂא מְשֹׁרֵת הַזֶּרַע) 그는 반드시 기뻐 소리 지르며 돌아올 것이다(יָבֹא בְרִנָּה בָּא) 정녕 그의 곡식 단을 들고서(נִשָּׂא אֶלְמִתּוֹ) ‘꾸준히’와 ‘반드시’와 ‘정녕’은 히브리어 구문(동사의 ‘부정사 절대형+미완료형’과 분사형)의 용법을 우리말 번역에 반영한 결과이다. 이때 히브리어 동사 ‘손에 지니다(נָשָׂא) 똑같은 분사 형식(נִשָּׂא) 두 번씩 반복해서(발으로) 나아가는 자의 손에는 씨 바구니가 들려 있지만, (발에서) 돌아오는 자의 손에는 곡식 단이 들려 있다고 비교하고 있다. 특히 히브리어 구문에 내 포된 ‘꾸준히’와 ‘반드시’는 그 속내에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기뻐서 외치는 시간보다 더 많음을 넌지시 일러준다.

시편 126장 6절의 서두에서 씨뿌리기와 눈물 흘리기가 히브리어 등위 접속사 ‘와브’(ו)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경작에는 오래 거기에 걸맞은 눈물 흘리기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말하려고 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서도 모질게 견디어 낸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다짐이다. 이런 방식으로 시편 126장 5-6절은 기쁨의 실체를 희망의 노래로 간주하도록 이끈다.

23) 시편 126:5이 분사 구문이라면, 126:6은 부정사 절대형 구문이다. 시편 126:6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나아가다’와 ‘돌아오다’는 말은 같은 동사를 ‘부정사 절대형 + 미완료형’으로 반복하는 형식이기에 우리말 번역으로는 ‘꾸준히 나아가다’와 ‘반드시 돌아오다’로 읽을 수 있다. 시편 126:6은 이런 형식으로 발로 나아가는 농부와 밭에서 돌아오는 농부의 심사를 대조적으로 강조해 놓았다. 이때, ‘기뻐 소리 지르며’(בְּרִנָּה)는 ‘전치사 + 명사 구문’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וּבְכֹה)는 ‘꾸준히 나아가는 자가 있다’와 함께 거론되는 동사 구문(부정사 절대형 + 미완료형) 형식으로 ‘계속해서 울고 있는’(weeping) 농부의 마음을 묘사해 놓았다.

눈물과 기쁨을 서로 따로 구분하여 파악하지 않고 ‘눈물은 기쁨의 마중물이 된다’라는 희망의 노래로, ‘눈물 흘리기는 기쁨 누리기의 디딤돌이 된다’라는 소망의 고백으로 펼치고 있다. 눈물과 기쁨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눈물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총체적 구도로 뻗어간다.

시편 126장 5-6절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심지 못했다면 거두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눈물을 심은 자만 기쁨을 거두게 된다. 눈물을 뿌린 자만이 기뻐하기를 그 열매로 갈무리할 수 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열매로 기뻐하기가 뒤따른다는 피조세계의 이치를 살아가기의 경륜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편 126장 5-6절의 소리는 시편 126편의 전체 구도 속에서도 되짚어보아야 한다. 시편 126:5-6만을 따로 구분하여 새기면 본문의 정서나 본문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다. 시편 126편의 전체 구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시인의 다짐이 무엇을 뜻하는 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1-6)

시편 126편은 그 형식이 공동체 애가일 수도 있고, 공동체 감사시일 수도 있다.²⁴⁾ 이 시편의 전반부(1-3절)가 과거를 회상하는 쪽에 초점을 둔다면, 후반부(4-6절)는 미래를 조망하는 쪽에 초점을 둔다. 시편 126편은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구조 속에서 본문의 가락을 애가에서 찬양으로 이끈다. 본문의 분위기를 포로 귀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과거의 역사에서 오늘의 생애 환경으로, 미완성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점층구조로 이끈다.²⁵⁾

이와는 달리 시편 126편의 구성은 세 단락으로도 새길 수 있다. 시편 126편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들의 시제, 어법 등에 따라 단락을 구분해 볼 때 시편 126편의 서술어들은 ‘지난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役事)에 대한 기억’(1-2절) → ‘오늘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향한 기대’(3-4절) → ‘내일에 거둘 삶의 열매를 향한 다짐’(5-6절)으로 이어진다. 시편 126편에서 들리는 소리를 어제(1-2절), 오늘(3-4절), 내일(5-6절)에 관한 시인의 음성으로 구분할 경우, 시편 127편은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기억하고(1-2절)→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고대하면서(3-4절)→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쁘게 맞이하는 시인의 삶(5-6절)”으로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셨던 큰일을 ‘웃음’(2절)으로 되새기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새 일을 기도로 간청하면서(4절),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할 때 지금 흘리는 ‘눈물’(5절)과 ‘울음’(6절)은 앞으로 맛보게 될 ‘기쁨’(5, 6절)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다.²⁶⁾

시편 126편은 순례의 길에 나서는 자가 암송하는 시다. 이 시의 들머리(1-2절)는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주전 538년)을 떠올린다.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순례길에서 되새기면

24) 김정우, 『시편 주석 III』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10), 556-557.

25) 김정우, 시편 주석 III, 558-559.

26) 왕대일, “구약의 눈물,” 『그말씀』(2024. 11), 72-85

서 기뻐하고 있다(3절). 그러나 아픔이 있다. 아직 미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의 순례길은 모두에게 있어야 할 귀향을 위해 기도하는 여정이 된다(4절). 순례길은 떠나는 길이자 버리는 길이다. 그런데 막상 순례길을 나서자, 순례길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회복하는 길, 본래 있어야만 할 곳으로 돌아가는 길, 자기 자리를 찾는 길이라고 깨닫게 된다. “원시반본”(原始返本), 시원(始原)으로 돌아가며 뿌리로 돌아가는 길이 순례길이라는 것이다.²⁷⁾ 그래서 시인은 자기 자기로 돌아왔을 때 자기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삶이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5-6절). 그때 시인의 입에서 터져 나왔던 간절한 소망을 오경웅은 이런 말로 정리하였다. “경운여수확(耕耘與收穫, 울며 씨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리).²⁸⁾

시편 126편의 시인은 오늘의 기도에 하나님이 내일 응답하신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눈물을 흘리며 애를 쓴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하는 삶을 맞이하게 된다고 외치고 있다. 그 외침을 이렇게 바꿔 들을 수 있다. “시편 126편은 우리의 시선을 고통과 분노에서 소망으로 옮겨주는 매체가 된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기에 폭력을 끊임없이 정당화시키는 분노의 하향 곡선에 매달려 끝없이 떨어지는 비극에 매몰될 수 없다. 분노와 소망은 새날을 오게 하도록 손잡고 함께 가야 한다. 마치 찬양과 애가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손잡고 가듯이.”²⁹⁾

27) 오경웅 지음, 송대선 옮김·해설, 『시편사색』 (의왕: 꽃자리, 2019), 692.

28) 오경웅, 『시편사색』, 691. 오경웅(吳經熊, 1899-1986)은 중국의 문인이자 법학자로 중국의 전통 학문을 배우다가 서양 학문에 빠져든 후 중국 고전의 언어로 기독교 사상을 새기는 여러 글을 남겼다. 미국에 유학하여 국제법을 전공하였고 중국에 돌아와 동오대학 교수와 상해 지역 법원의 판사를 역임하였다. 하와이 대학과 미국 뉴욕에서 동양사상과 가톨릭 영성에 대해 강의하였고, 만년에 대만으로 돌아와 중국문화대학 교수를 지냈다.

29) LeAnn Snow Flesher, “Psalm 126,” *Interpretation* (2006), 436, 김정우, 『시편 주석 III』, 556에서 재인용.

그러나 시편 126편은 이와 다르게도 새길 수 있다. 첫 구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가 번역본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라고 하였지만, 가령 영어성경 NRSV는 이 구절을 “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회복하실 때에”(When the Lord restored the fortunes of Zion)라고 번역해 놓았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

시편 126편 해석은 본문비평 작업과 함께 출발해야 한다. 히브리어 성경(BHS)의 본문비평 장치가 시편 126:1의 ‘쉬바트 치온’(שִׁבְתָּ צִיּוֹן)을 헬라어성경(LXX)을 비롯한 여러 사본을 따라서 ‘쉐부트 치온’(שְׁבוּת צִיּוֹן)으로 읽도록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성경의 마소라 본문을 따를 경우, 시편 126:1은 “시온의 운명”이 되지만, 본문비평장치의 제안을 따를 경우 시편 126:1은 ‘시온의 포로’가 된다. 그래서, 예컨대, NRSV 성경은 시편 126장 1,4절을 “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회복하실 때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키소서, 네게브에서 흐르는 시내들처럼”으로 읽었다.

시편 126편은 두 갈래로 새길 수 있다. 하나는, 우리말 성경처럼,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오르면서 지난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셨듯이 아직 여전히 바벨론 유배지에 남아 있는 자들마저 다 하나님이 ‘남방 시내들같이,’ 즉 물이 없던 와디(wadi)가 물이 넘쳐흐르는 시내가 되는 것처럼, 시온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드리는 간청이 된다. 다른 하나는, NRSV 성경처럼,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절기에, 예컨대 초막절 절기에, 즉 유다 땅의 절기가 건기에서 우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된다.³⁰⁾

30) 방기민, “시편 126편 초막절 배경에서 읽기,” 「구약논단」 25:1(2019),

시편 126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시편 본문에 추가된 제목이 시편 읽기의 독법을 이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NRSV의 시편 126편은 “초막절을 전후로 이스라엘의 계절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건기에서 새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우기로 전환할 때” 시온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드린 기도일 수 있다.³¹⁾ 시편 126편의 으뜸 가락은 한 해 농사가 시작되려는 계절에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들이 시온의 운명이 메마름에서 풍요함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라는 간청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편 126편을 초막절 절기에 순례를 떠난 자들의 소망을 담은 기억과 간청과 기도로 읽을 경우, 우리 논의의 과제인 시편 126:5-6의 메시지는 더욱 분명해진다. 계절의 리듬이 건기에서 우기로 전환되는 절기에 시인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 자기가 해야만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짐하였다는 것이다. 즉, 시편 126:5-6의 다짐 속에는 구약 신앙의 신명기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구약에서 신명기 가르침은, 쉽게 말해, 인과응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화와 재앙과 징벌 등이 따른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 인과응보는 기계적인 인과응보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현상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소개해 놓은 것이 신명기적인 인과응보 사상이다.³²⁾ 기계적인 인과응보는 으레 그렇게 되리라는 법칙이지만, 신명기적인 인과응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순종이 강조되고 있는 원칙이다. 기계적인 인과응보는 일종의 숙명론이지만, 신명기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

151-182.

31) 위의 책, 159, 163.

32) 왕대일, 『신명기 강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285-290.

다.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막혔던 길이 열리고, 닫혔던 길이 뚫리고, 답답했던 먹구름이 걷히게 된다는 소망의 질서가 신명기적인 인과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자에게는 복과 은혜가 있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칼과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신다는 말씀의 가락은 이런 맥락에서 수렴해야 한다. 시편 126:5-6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살아내기의 길을 인과응보적인 언어로 표현하였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다짐 속에는 지금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내일에 누릴 기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안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2.3. 눈물을 흘려야만 함에도 기뻐하기(합 3:16-18)

구약이 전하는 기쁨에는 ‘눈물을 흘려야만 함에도 기뻐하기’(Joy despite Grief)가 있다. ‘기쁨과 눈물’이 기쁨을 눈물의 반어법으로 본다면, ‘눈물 이후의 기쁨’은 기쁨을 눈물의 열매로 보는 시각이고, ‘눈물을 흘려야만 함에도 기뻐하기’는 기쁨을 눈물의 승화(昇華)라고 보는 관점이다. ‘오를 승(昇)’ ‘꽃 화(華),’ 승화(昇華)란, 사전적으로는, 드라이아이스 같은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화(氣化)하여 기체(氣體)가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일을 지칭한다. 예컨대 신체적 장애를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일컫지 않은가. 성경의 증언에도 눈물을 기쁨으로 승화시킨 사례가 있다. 눈물을 흘려야만 함에도 기뻐하기는, 쉽게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다. ‘그렇기에·그러므로’ 기뻐하기가 아니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삶이란 눈물을 기

뽕으로 승화시킨 경우다. 눈물과 기쁨을 이분법적으로 대조하거나 인과응보적인 전후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눈물을 뿌려야만 하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기쁨으로 삭히려는 토대로 삼는 열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 역설적인 기쁨이다. 기쁨의 역설이다. 삶의 현실이 자아내는 아픔과 괴로움, 상실과 절망 등을 기뻐하기의 도약대로 삼으려는 자세다. 말하자면, 기쁨을 눈물의 파라독스(paradox)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런 사례가 구약의 하박국서에 나온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
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
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
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6-18)*

하박국의 현실은 기쁨과는 정반대다. 지금 하박국의 처지는 그의 ‘창자’가 흔들리고, 그의 입술‘이 떨리는 상황이다. 하박국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온통 마을을 치려고 몰려오는 군대들의 함성이다. 하박국이 기다리며 들어야 하는 소식은 모조리 ‘환난 날’이다. 오죽했으면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외쳐야 했을까? 그런데도 하박국은 그런 현실에서 다음과 같이 외친다. “(그러나)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וַאֲנִי בַיהוָה אֶעֱלֶזָּ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וְאֶגִּילָה בַּאֱלֹהֵי שְׁעֵי).” 이 구절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안에서 미친 듯이 기뻐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소리 지르며 기뻐하리라.’

여기에서 ‘미친 듯이 기뻐하다’로 옮긴 히브리어 ‘알라쯔’(qal 미완료형)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다, 의기양양하다’(to exult)라는 뜻이고, 그 뒤를 받치는 히브리어 “길”(qal 미완료형)은 ‘소리 치며 기뻐하다’(to rejoice)라는 의미다. 둘 다 히브리어 “사마흐” 보다는 기뻐하는 감격을 요란한 몸짓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기뻐하기의 좌표를 ‘여호와 안에서’(בַּיהוָ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בְּאֵלֹהֵי יִשְׁרָאֵל)로 밝혀 놓았다.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어 전치사 “안에서”(בְּ)를 ‘말미암아’로 옮겨놓았지만, 히브리어 본문의 본디는 ‘(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이다. 게다가, ‘기뻐하리로다’로 옮겨진 글자들은 다 문법적으로는 청유형(cohortative)이다. 혼자서만 기뻐하지 말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대열에 들어서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박국이 외치는 기쁨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의 역사적·사회적·실존적 현실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구약의 ‘테레아싸르’(12예언서) 가운데 하박국은 살피기가 쉽지 않다.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하박국이 누구인지, 그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를 짐작할 만한 정보를 하박국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구약학자들은 대체로 하박국의 저작 시기를 주전 7세기 말에 있었던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위협·침공으로 본다. 하박국의 시대를 어떤 특정한 시점으로 정리하기보다는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주전 597년) 즈음한 시기로 보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연대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침공(주전 602년)에서부터 예루살렘 포위(주전 598년)를 거쳐 이스라엘 역사의 포로기(주전 587-538)와 구·신약 중간기의 마카비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다.³³⁾ 하박국서의 처음 1-2장이 두 차례에

33) Philip Whitehead, “Habakkuk and the Problem of Suffering: Theodicy Deferred,” *Journal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10: 2(2016), 265-282; Marvin A. Sweeney, “Structure, Genre, and Intent in the Book of Habakkuk,” *Vetus Testamentum* 41:1(1991),

걸친 예언자의 탄원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을 다양한 장르로 싣고 있다는 것도 하박국서가 요시아 시대부터 포로기까지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추측하게 한다.³⁴⁾ 거기에서 하박국서 3:1-19를 하박국서에 추가된 후기나 부록으로 여기려는 정서까지 고려하면,³⁵⁾ 하박국의 시대적 배경을 한두 마디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하박국의 현실을 추정할 때 흔히 거론되는 작업은 하박국서에 소개된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합 1:6)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노력이다. 예컨대 그 “갈대아 사람”은 주전 612년 앗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군사들이거나, 애굽 왕 느고의 군대를 섬멸한 갈그미스(Carchemish) 전투(주전 605년)의 바벨론 군사들일 수 있다. 하박국이 안타까워하는 ‘의인을 에워싼 악인’(합 1:4)도 하박국의 시대를 가름하는 이정표가 된다. 이때 의인이 유다 왕국 마지막 순간 왕의 자리를 지키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여호야긴(왕하 24:15)이라면, 악인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여호야긴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랐던 시드기야(왕하 24:17)일 수 있다. 하박국이 괴로워하는 시대적 상황이 유다 왕국 멸망(주전 587/6년) 직전의 환경일 수 있다는 소리다.

어찌 보든지, 하박국의 시대는 전란에 시달리던 때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정의·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 거칠게 물으며 따질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에 시달리고 있던 때가 하박국의 정황이다.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은 세상 현실이 어둡기에 그의 개인적 내면도 덩달아서 깊은 어둠에 눌려 있는 자다. 나라 안

63-83.

34) 배희숙, “하박국 1-2장의 형성사 고찰,” 『구약논단』 18:4(2012), 96-120.

35) Sweeney, “Structure, Genre, and Intent in the Book of Habakkuk,” 63.

뿔이 전쟁과 기근과 약탈에 시달리던 답답하고 암울하던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하박국은 그의 예언자적 선포의 첫마디를 시대적 난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질문으로 열었다.

하박국서의 글말에는 하박국이 직면했던 시대적 고뇌가 반영되어 있다. 하박국서의 첫 장은 하나님께 연신 묻고 따지는 하박국의 도전으로 운을 뚫는다. 하박국의 목소리는 세상 현실의 암울함을 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따지는 투다. 세상사가 엉망진창인데도 그 아수라장을 그냥 보고서만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1:2) 그냥 그렇게만 계실 작정이냐고 캐묻는다. ‘어찌하여’(1:14) 선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현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고 있느냐고 울부짖는다.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이 듣기에는 놀라운 소리다. 의인을 에워싸서 괴롭히는 악인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손수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1:5-11). 하박국은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런 조치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에 ‘웁으니까’(1:17)라고 따진다. 하박국은 과감하다. 자기가 던진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합 2:1)라고까지 외친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하다. 하나님의 응답은 종말에 이르는 ‘묵시’(합 2:2-3)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합 2:3). 그 묵시를 깨닫고 기다리는 자는 정녕 의인이다. 그래서 하박국은 교만한 자(합 2:5-8)들과는 달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b)라고 외친다. 그 뒤에 이어지는 “화 있을진저”로 이어지는 일련의 꾸짖음은 그런 하박국의 다짐을 뒷받침하는 말글이다(합 2:9-19). 그런 말글의 매무시가 이것이다.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합 2:20).

하박국서 3장은 1-2장이 제기한 탄원과 응답에 대한 하박국의 깨달음이다. 하박국서 1-2장과 3장은 그 주제와 글말, 어법 등에서 동일한 흐름을 띤다.³⁶⁾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던 갈대아 사람들이 3장에서는 그들이 벌였던 포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된다(13-16절). 이 심판이야말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증거다. 마빈 스위니(Marvin A. Sweeney)는 하박국서가 예언자의 선포(1-2장)와 예언자의 기도(3장)라는 두 단락 형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의로우심을 긍정하는 메시지를 내뿜고 있다고 말한다.³⁷⁾ 그런 짜임새로 하박국서는 사람들이 위기라고 외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신실하심을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하박국서 1-2장과 3장의 관계는 하박국서가 의도한 분위기의 급전으로 읽을 수 있다. 처음 1-2장에서는 하박국이 묻고 따지던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숨 막히는 모양새를 이어갔지만, 마지막 3장에 가서는 하박국이 돌연 그동안 제기하였던 모든 질문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수금”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때문이다. 2장 끝에서는 온 땅을 향해 “잠잠할지니라”(20절)라고 해놓고서는 3장에 들어서서 하박국은 목소리를 높여 수금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1, 19b 절). 그 노래에서 지금까지 하박국의 입말로 쏟아졌던 울부짖음과 탄식이 돌연(!) 기도와 찬양으로 바뀐다.

하박국의 노래(3:2-19a)는 크게 두 단락이다. 하나님에 관한 묵상(합 3:2-15)과 하박국의 처지에 관한 고백(합 3:16-19a). 하박국의 노래에서 하나님은 역사(歷史)의 무대에서 역사(役事)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박국이 묵상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합 3:3) 땅에서는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합

36) 위의 책, 78-80.

37) 위의 책, 81.

3:8) 있다. 하지만, 하박국의 현실은 궁하다. 하박국에게는 지금 여섯 가지가 없다. ‘무화과나무에 달린 것이 없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에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합 3:17). 세상살이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지낼 것, 쌓을 것, 부릴 것, 누릴 것 등이 있어야 마음이 기쁘고 몸이 즐겁고 삶이 밝아지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박국에게는 지금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기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있다.

하박국의 고백(3:16-19a)에서 들리는 기쁨의 노래는 길이는 짧지만, 그 울림은 길다. 그 노래의 전경(foreground)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사의 이치를 다 헤아리지 못했던 안타까움이고, 그 노래의 배경(background)은 신정론(theodicy)이다. 하박국의 노래는 신정론이 제기하는 물음에 갇혀 있던 자들에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신정론 너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박국의 노랫가락은 처음에는 단조로 시작하나 이내 그 가락이 기쁨의 장조로 전환한다.

하박국서는 신정론을 글감으로 삼고 있다. 하박국서의 신정론은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부르는 담론이 아니다. 흔히 하나님의 정의를 묻는 토론을 가리켜 신정론이라고 부른다. 착한 자가 뜻밖에 고난을 겪고, 선한 자가 악한 자들에게 눌러 지내며, 신앙을 지닌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 의해 밀려나고, 쫓겨나고, 억압받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곧은지·공평한지를 캐묻는 질문을 가리켜 신정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하박국이 개진하는 신정론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캐묻는 물음(神正論)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을 사색하는 질문(神政論)이다. 관념적이기보다는 실존적이고, 철학적이기보다는 신학적이다. 의로운 사람을 대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캐묻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설치하는 세상에서, 즉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지 않고 부당하게 보이는 세상에서, 의로운 자들이 어떻게 의인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묻는다.

하박국의 노랫말(3:16-19a)은 모두 세 절이다. 처음에는 ‘떨림의 현상’을 토로한다(16절). 그다음에는 ‘없음의 현실’을 고백한다(17절). 마지막에 가서는 ‘있음의 진실’로 떨림의 현상과 없음의 현실을 극복한다(18-19a). 하박국은 하나님의 부재(the absence of God)를 탓하지 않는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임재(the presence of God)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있음의 진실’에 주안점을 둔다. 하박국에게 무엇이 없는가? 세상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우기는 것들이 없다(3:17). 하박국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박국에게는 “여호와”(3:18a)가, “구원의 하나님”(3:18b)이, “주 여호와”(3:19a)가 있다. 그 ‘있음의 진실’에서 여태까지 ‘없음의 현실’을 견디고자 쏟아냈던 “언제까지”와 “어찌하여”는 사라지고 만다.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 여호와는 하박국의 힘(לִּי)이다(3:19a). 그 힘으로 하박국은 크게 기뻐한다. 그 힘이 있기에 하박국은 의기양양 즐거워한다. 세상에 현존하는 악 탓에 실존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굳게·굳게·굳게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다. 믿음은 원칙에 충실하기(faithfulness)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하나님의 말씀에 관한·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한 충성(fidelity)이다.³⁸⁾ 그러기에 우리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b). ‘눈물을 흘려야만 함에도 기뻐하기’는 그런 믿음의 노래다. 그 역설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공감할 때 하박국의 노래는 나의 노

38) Whitehead, “Habakkuk and the Problem of Suffering: Theodicy Deferred,” 274-276.

래가 된다.³⁹⁾ 거기에서 눈물은 기쁨으로 승화된다.

2.4. 눈물과 함께 기뻐하기(느 8:8-12)

구약이 증언하는 기쁨의 현상 중에는 ‘눈물과 함께 기뻐하기’(Joy with Grief)가 있다. ‘눈물과 함께 기뻐하기’는, 어떤 경우에는, ‘눈물 안에서 기뻐하기’(Joy in Grief)로도 나타난다. ‘눈물과 함께 기뻐하기’ 또는 ‘눈물 안에서 기뻐하기’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Joy despite Grief)와는 구별된다. ‘눈물을 흘려야만 함에도 기뻐하기’가 슬퍼하거나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사례라면, ‘눈물과 함께 기뻐하기’는 슬퍼하거나 애통해하는 시공간을 아예 기쁨의 모판으로 삼는 경우다. 이때 슬픔과 기쁨은 “감정의 표현”(emotional expression)이기보다는 “의례적 행위”(ritual behavior)로 전개된다.⁴⁰⁾ 참회의 눈물과 깨달음의 기쁨이 애통해하는 의례(ritual of mourning)와 기쁨의 의례(ritual of joy)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 의례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닌다. 혼자서가 아닌 더불어서 슬퍼하거나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의례의

39) 위의 책, 281. 필립 화이트헤드는 하박국서의 독법으로 “신정론의 이치를 따지는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보다는 신정론의 역설에 참여하는 공감의 신학(sympathetic theological reading)”을 제안한다.

40) Anderson, *A Time to Mourn, A Time to Dance*, 107-109. 게리 앤더슨은 래드클리프 브라운(A. R. Radcliffe-Brown), 뒤르켄(E. Durkheim), 매리 더글라스(Mary Douglas) 같은 사회인류학자의 관찰을 따라서 구약, 유대 랍비 문헌, 고대 서아시아의 문헌에 수록된 슬픔과 기쁨의 의례를 추적한다. 그가 풀이하는 문헌에서 슬픔과 기쁨은 “감정의 표현”(Expression of Emotion)이 아니라 “의례적인 표현”(Behavioral Expression)이다. 그런 토대 위에서 게리 앤더슨은 고대 이스라엘이 수행하였던 “의례적인 삶”(Ritual Life)과 거기에 동반되었던 감정 표현을 히브리어 “심하”(חַמָּה 기쁨)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폈다.

골자로 삼는다. 이런 경우, 기쁨의 의례는 스스로 기뻐하기보다는 기뻐하라는 지시에 맞춰 기뻐하는 몸짓이다. 이런 맥락에서 눈물은 기쁨을 담는 그릇이 된다. 느헤미아가 증언하는 슬픔과 기쁨이 바로 이런 의례에 속한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잃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앎이라”(느 8:8-10, 12).

‘여호와와의 성일’에, 곧 ‘거룩한 날’(הַיּוֹם קָדֹשׁ)에, 유다 백성에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는 일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 ‘거룩한 날’에, 즉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일”(הַיּוֹם קָדֹשׁ הוּא לַיהוָה אֱלֹהֵינוּ)에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אַל-תִּתְאַבְּלוּ וְאַל-תִּבְכּוּ, 느 8:9)에서 ‘슬퍼하다’의 히브리어 ‘아발’(אָבַל, hithpael 형)은 자책하며 애도하는 눈물을 가리키고, ‘울다’의 히브리어 ‘바카’(בָּכָה)는 소리내어 우는 눈물을 가리킨다. 그 뒤에 이어지는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10)는, 달리 표현하면,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와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다’이다. 여기에서 ‘기쁨’(חֵדְוָה)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고 ‘여호와와의 기쁨’(חֵדְוַת יְהוָ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기쁨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란 뜻이다.

느헤미야서는 페르시아가 고대 서아시아의 온 누리를 통치하던 시절, 특히 제2성전기(주전 515-주후 70) 초반부에,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존하던 자들의 이야기다. 그중에서도 느헤미야서 8장은 모세의 토라, 곧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깨달은 유다 사람들의 자기 이해(identity)가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새로워지는 순간을 다룬다. 깨달음이 새 삶의 토대가 되었다. 깨달음에서 삶의 에토스(ethos)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느헤미야서 8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신년맞이 감격을 ‘모세의 율법책’을 듣는 일에서 찾았다. 바벨론 포로시대를 뒤로 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살다가 맞이한 ‘일곱째 달’(느 8:1)에 그들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제사장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주문하였다.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모세의 토라에 비친 자신들의 실상이 토라의 기대와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뉘우치던 자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친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느 8:9),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10).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느헤미야 8:10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쁨’으로 읽어야 한다. 이때 ‘기쁨’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심하’(שִׂמְחָה)가 아니라 ‘헤드바’(תְּהִיָּה), 즉 ‘하나님의 즐거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참조, 대상 16:27). 이 기쁨(헤드바)은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였다’(לְעֵשֶׂת שִׂמְחָה גְּדוֹלָה), 느 8: 12a)에서 백성이 누린 기쁨(심하)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자책하며 흘린 눈물은 사람의

눈에서 흘러나왔지만, 유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그날을 ‘거룩한 날’(הַיּוֹם הַקֹּדֶשׁ)로 삼아서 지킨 기쁨의 의례(rite of joy)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 마음에 채우는 의식이였다. 유다 백성이 흘린 눈물이 자기반성의 표정이라면, 눈물을 그치고 기뻐하라는 느헤미야의 처방은 자기 변형의 처방전이 된다. 사람의 슬픔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모든 백성은 가서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하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느 8:13-18).

느헤미야 8장이 전하는 기쁨의 의례나 기쁨의 절기는 신명기 법전(신 12-26장)의 적용이다. 제2 성전 시대 첫 구간을 살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닫자, 신명기 법전의 첫대목을 살아가기·살아내기의 지침으로 삼았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 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고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신 12:5-7).

신명기 법전(신 12-26장)은 신명기 십계명(신 5:7-21)의 실천편이다.⁴¹⁾ 신명기 법전의 들머리(신 12:2-28)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신 5:7)라는 계명의 부정적인 어투를 긍정적인 말글을 사용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

41) 신명기 십계명(신 5:7-21)과 신명기 법전(신 12-26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왕대일, 『신명기 강의』, 158-162; 왕대일, 『다시 듣는 토라』(서울:한국 성서학 연구소, 1998), 244-258, 같은 책, 개정판(2008년)에서는 317-322, 352-353을 보라.

고 택한 곳(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라고 바꿔놓았다. 하나님 섬기기의 실천은 성전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예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신명기 12장 5-7절에서 돌을새김하는 예물(예배)은 화목제다. 번제가 언급되고는 있지만, 이 구절에서 두루 거론되는 예물은 화목제다. 화목제의 골자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로 삼았다. 하나님이 호스트(host)이신 곳에서, 하나님이 차리신 식탁(제단)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손님(guest)이 되어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는 잔치(코이노이아)가 바로 신명기 법전이 처방하는 예전의 내용이다.⁴²⁾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지시는 단연 신명기 신앙의 용어다. 구약의 오경에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는 명령형이 모두 11회 나오는데, 그 가운데 9회가 신명기에 집중되어 있다(레 23:40; 민 10:10; 신 12:7, 12, 18; 14:26; 16:11, 14, 15; 26:11; 27:7).⁴³⁾ 느헤미야서 8장에서 유다 사람들이 지킨 초막절 행사가 바로 그런 사례이다. 그때 초막절 절기의 ‘표정’은 기쁨이었고, 그 절기의 ‘차림표’는 기쁨의 의례이었다(참조, 대하 30:21, 23, 24; 스 6:22; 예 8:15-17; 9:17-19, 22).⁴⁴⁾

문제는, 이런 식의 ‘기뻐하기 의례’를 예언자들이 곱게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건기에서 우기로 전환하는 자연 질서의 원천을 바알제의(Baalism)로 수렴하던 가나안의 토양이 이스라엘 종교를 위협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구약학자들은 가나안 종교가 ‘먹고 마

42) 왕대일, 『신명기 강의』, 164.

43) Anderson, *A Time to Mourn, A Time to Dance*, 19.

44) 위의 책, 20.

시고 즐기는 축제’를 제의의 골자로 삼았다면, 이스라엘의 야훼신앙은 “내향적, 영적인 경건”(the inward spiritual piety)을 제의의 내용으로 삼는다고 보았다.⁴⁵⁾ 신상 앞에 모여 제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이방인의 풍속이었다는 것이다(삿 16:23). 호세아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너희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하지 말아라.”라고 꾸짖었던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호 9:1).

호세아의 꾸짖음을 요엘은 아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금식하라는 말로 바꿔서 전한다.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하셨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욥 2:12, 15, 23).

구약이 증언하는 ‘심하(חַמָּה)’ 의례에 관한 서로 다른 이 두 입장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신명기가 규정한 제의적 기쁨은 바알 종교가 드러냈던 열광주의적 의식으로부터 이스라엘 신앙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⁴⁶⁾ 이스라엘 신앙이

45) 예컨대 P. Humbert, “Laetari et exultare’ dans le vocabulaire religieux de l’ancien Testament,” *Revue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22(1942), 185-214, 특히 197쪽. Anderson, *A Time to Mourn, A Time to Dance*, 16에서 거듭 인용.

수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뻐하기·기뻐하며 즐거워하기가 이방 종교 예식처럼 ‘진탕 먹고 마시며 뛰노는’(orgiastic)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신앙이 누리는 제의상의 기쁨(cultic joy)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 예전의 코이노니아로 지켜야만 하였다.

기쁨이 쾌락이 되어서는 안된다. 구약의 기쁨은 ‘carpe diem’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는 시공간을 가나안 종교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만은 없다. 웃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란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거치는 통과의례(a rite of passage)의 본질은 기쁨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누리는 여정에서도 그 본질은 기쁨이다. 게다가 구약의 시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험을 예배의 시공간이 아닌 일상의 차원으로 그 폭을 대폭 넓혀 놓았다.⁴⁷⁾ 먹고 마시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기뻐하는 일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예배(하나님 섬기기)의 연장이다(시 27:6; 35:27; 141:2).⁴⁸⁾

사실, 사람살이에서 눈물 흘리기와 기뻐하기는 ‘하나의 구성단위’(a single ritual unit)를 이룬다.⁴⁹⁾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흐름 속에서 슬픔과 기쁨의 속내가 드러난다는 뜻이다. 기쁨의 의례에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감격이 담겨 있다.⁵⁰⁾

46) Anderon, *A Time to Mourn, A Time to Dance*, 16.

47) 위의 책, 38.

48) J. Kugel, “Topics in the History of the Spirituality of the Psalms,” in A. Green, ed., *Jewish Spirituality from the Bible through the Middle Ages* (New York: Crossroads, 1986), 122-123.

49) Anderon, *A Time to Mourn, A Time to Dance*, 107.

50) 위의 책, 82-95.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시 30:11).

슬픔에서 춤으로, 베옷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감격이 아로새겨져 있다. 여기에서 기쁨을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 심하(שִׂמְחָה)에는 식물의 성장을 가리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리 앤더슨(Gary A. Anderson)의 설명에 주목하게 된다. 히브리어 낱말 ‘심하’(שִׂמְחָה)의 어근 (s-m-ḥ)이 아카드어(šmāḥu)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면, 그 뜻은 ‘식물이 말라 죽는 상태’를 지칭하는 ‘아발’(אָבַל)의 반대가 된다는 것이다.⁵¹⁾ 히브리어 ‘기뻐하다’가 ‘빛나다, 밝다, 자라다, 기뻐하다’라는 뜻을 차례대로 거론한다면, 이것은 ‘어두워지다, 식물이 마르다, 눈물을 흘리다’를 차례대로 거론하는 히브리어 ‘아발’과 대비를 이룬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수 있는가에 있다. 느헤미야 8장의 증언에서도 보았듯이 눈물은 사람의 마음에서 터져 나왔지만, 기쁨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채워주셔야 한다. 기쁨의 본질이 기운(spirit)이라는 어의론도 상기하자. 사람은 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주 하나님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사 61:3) 해주시기 때문이다(사 61:10; 렘 31:13; 시 71:22-23). 슬픔의 근원이 하나님의 부재하심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은 애통해하는 의식을 벗어나서 기뻐하는 의식에 힘차게 참여할 수 있다.⁵²⁾ ‘슬픔과 더불어 기뻐하기’(Joy with Grief)의

51) 위의 책, 51-53.

52) 위의 책, 93.

속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

2.5. 눈물 너머에서 기뻐하기(사 65:17-20)

이제 끝으로 ‘슬픔 너머에서 주어지는 기쁨’(Joy beyond Grief)에 주목하자. 구약의 기쁨에는, 구약에 수록된 기쁨의 현상 학에는, 오늘 당하는 슬픔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을 초월(超越)하면서 종말에 누릴 기쁨을 고대하는 희망의 기쁨이 있다. ‘눈물을 흘려야 함에도 기뻐하기’(Joy despite Grief)가 눈물을 기쁨으로 승화(昇華)시키는 역설이라면, ‘눈물 너머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눈물의 자리를 초월(超越)하는 희망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넘을 초(超), 넘을 월(越),’ 초월의 기쁨이란 기쁨의 실체가 인식과 경험 너머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승화의 기쁨이 그 주소를 오늘, 여기에 둔다면, 초월의 기쁨의 마당은 “그날,” “그곳”이다.

‘눈물 너머에서 기뻐하기’는 성격상 종말론적이다. 현실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그날’에 가서 얻게 될 기쁨과 즐거움을 확신하면서 슬픔의 현실을 넘어서고 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욥 5:17)라고 한 것이나, 세상 끝 날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한 것 이내(단 12:12),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시 94:12)라는 소리가 다 그런 사례에 든다.

‘눈물 너머에서 기뻐하기’의 뿌리는 유다 백성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예루살렘 패망(주전 587년)이다. 예루살렘 패망 후 겪어야만 하였던 모진 바벨론 포로살이(주전 587-538년)는 이스라엘 정신사의 반응을 두 갈래로 인도하였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몰락을 애도하는 정서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대하는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스라엘 역사의 포로기를 거치면서 성장한 종말론 신앙은 사람 탓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길은 사

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깨달음으로 부상하였다. 그 깨달음에서 ‘눈물 너머에 존재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렬한 희망의 신학으로 다가왔다.⁵³⁾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패망과 애도의 쓰라림을 종말론적 기쁨으로 회복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스가랴의 경우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오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슥 8:19).

이 말씀의 무대는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주전 515년) 예루살렘이다. 그때 베엘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스가랴를 찾아와서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물었다(슥 7:1-3). 성전이 황폐한 채 버려져 있을 때 모두가 지켰던 애도의 의례를 언제 끝내는 것이 좋을지를 스가랴에게 물어본 것이다. 두 번째 성전의 봉헌을 금식을 끝내는 의례로 삼아야 할 시점으로 보았다는 소리다. 스가랴의 답변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리된다. 이제까지 지켜온 공식적, 공개적 애도 기간은 끝나고 이제부터는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잔치(communal festive celebration)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모두가 공감하며 누릴 기쁨의 의례’(public displays of joy)가 감격스럽게 펼쳐질 것이다.⁵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내주하시게 되기 때문이다.

스가랴가 다짐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사야 40-66장에서는 좀

53) 왕대일, 『구약성경의 종말론』, (서울:한국성서학연구소, 2017), 2-3, 9, 23.

54) D. Peterson, *Haggai and Zechariah 1-8*,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4), 313-324; Anderson, *A Time to Mourn, A Time to Dance*, 110-111.

더 종말론적이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이사야서의 매무시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
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
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
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
명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
이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
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
하시니라”(사 65:17-20, 25).

이사야서의 대미(65-66장)는 시온의 회복으로 향한다(사 66:7-14). 이 ‘회복’을 가리켜 이사야서 65장은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부른다(사 65:17-19a).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 그곳에서는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며 안타까움, 아쉬움, 헛됨, 해함, 상함 등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사 65:19b-25). 그곳이 아직은 여전히 부정(不淨, 不正, 不眞)하지만(사 65:1-16; 66:1-6, 15-24), 이사야가 선포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날에 패역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 환난의 시공간을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다시 지으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신정론 같은 문제가 다시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⁵⁵⁾

이사야 65장 17-18절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

55) 왕대일, 『구약성경의 종말론』, 357.

하나니”라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짙막한 구절 속에 ‘창조하다’(בָּרָא, qal 분사형)가 세 번 연거푸 반복하고 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이사야의 소망은 단호히 하나님 중심적이다. 다윗 왕국의 회복을 말하지 않고(비교, 스 9:9-10),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하실 새 창조의 스포트라이트를 예루살렘에 비춘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창조의 방점은 예루살렘(시온)의 거민·주민·시민이 누릴 기쁨의 회복에 찍힌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왜 기뻐하는가? 세상을 사는 자들의 표정이, 사람살이의 무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변혁되기 때문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도로 공생과 상생의 자리로 변혁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시온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처녀(딸) 시온으로 비난받던 예루살렘이(사 1:8),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안타깝게 일컬어지던 시온이(사 54:1), 마침내 어머니 시온이 되어(사 66:7-8)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게”(사 66:12)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사 66:10).

기쁨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동사 삼총사(?)가 있다.

‘사마흐’(be glad, שמח)와 ‘길’(to rejoice, גיל)과 ‘수스(to exult, שיש)이다. 이 단어들은 각각 명령형으로 이어지면서 에덴의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다. 새 예루살렘은 새 에덴이다. 에덴(עדן)이란 글자의 뜻도 기쁨인 점을 잊지 말라. 새 예루살렘의 바탕은 기쁨이다.

기뻐하라는 소리가 ‘기뻐하라’(שמח), ‘즐거워하라’(גיל), ‘기뻐 날뛰어라’(שיש... שיש) 라고 점층적으로 커지면서 이사야가 기대하는 종말론적 기쁨의 내용을 새 에덴의 창조로 채우고 있다.⁵⁶⁾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온 세계가,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기쁨의 바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신정론의 고민은 종말론에서 해소된다. 세상살이의 한계가 종말론에서 풀어지고 있다. 존재론의 고민이 종말론에서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사야가 고대하는 종말론적 기쁨을 그날에야, 그곳에서만, 이루어질 희망으로 단정하지 말자.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살아감·살아냄의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이사야가 고대하는 종말론적 기쁨은 산상수훈의 이른바 ‘아홉 번째 복’(마 5:11-12)에 서도 읽을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의 무대가 고난과 핍박이 있는 현재라는 사실을 참조할 때 마태복음

56) 위의 책, 350-351.

5:12가 선포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종말론적으로 누릴 보상이다.⁵⁷⁾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마 5:11-12)

마태복음 5장 11-12절을 산상수훈의 ‘...자는 복이 있나니,’(Μακάριοι οἱ)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읽기에 따라서 산상수훈이 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일곱 개, 열 개, 혹은 아홉 개가 될 수 있다.⁵⁸⁾ 우리는 마 5장 11-12절에 나오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Μακάριοί ἐστε)를 여덟 개의 “복이 있나니”(마 5:3-10)를 종결짓는 단락으로 읽으려고 한다.⁵⁹⁾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태 5:11-12의 두 낱말 ‘박해하다’(διώκειν)와 ‘하늘’(οὐρανός)은 본문을 아홉 번째 지복(至福)이나 팔복을 종결짓는 선언으로 읽도록 인도한다. 이 경우, 마태 5:3-12의 주제어(leitmotif)는 처음(마 5:3)과 끝(마 5:12)에 나오는 하늘

57) Bernardo Estrada, “The Last Beatitude. Joy in Suffering,” *Biblica*, 91:2(2010), 187-209.

58) H. D. Betz, *The Sermon on the Mount* (Minneapolis, ME, 1995), 107.

59) 마 5:3-10은 그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βασιλεία των οὐρανών)에 관한 선포라는 점에서 수미상관(首尾相關, 인클루지오, inclusio)을 이룬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3)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0)라는 선포 안에 여섯 개의 복이 자리하고 있는 모양새다. 또는 마 5:3-10의 구조는 여덟 개 말씀이 두 쌍으로 짝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도 읽을 수 있다. 여덟 개 말씀 가운데 네 번째와 여덟 번째가 각각 “의”(δικαιοσύνη)에 관한 선포로 글말을 매듭짓고 있기 때문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마 5:8)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0)가 그 네 번째와 여덟 번째에 해당한다.

(천국)이 된다.

물론, 아홉 번째 복은 그 형식이나 내용 등에서 팔 복과는 차이가 난다.⁶⁰⁾ 그러나 아홉 번째 복을 팔 복의 결론으로 여긴다면, 마태 5:3-12의 “구 복”은 ‘복이 있는 자는’ → ‘복이 있는 자로 일컬어지려면’ → ‘복이 있는 자가 누릴 약속은’이라는 점층구조를 지닌 삼부작(trilogy)이 된다.⁶¹⁾ 주목할 것은, 아홉 번째 복이 예수를 따르다가 세상에서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사술(詐術)에 매인다’(마 5:11)라고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마 5:12a)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쁨의 좌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받고 온갖 사술(詐術)에 시달리는 삶’(마 5:11)으로 정하고 있다. 종말에 가서 얻을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짐에는 처음 교회가 당면했던 박해 상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박해한다’(διωόκειν)라는 마태의 용어는 처음 교회가 당했던, 예수 공동체가 맞닥뜨려야 했던 사회적 차별을 가리킨다.⁶²⁾ 산상수훈의 아홉 번째 복은 그런 차별과 박해를 견디는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 5:12a)라고 선언한다. ‘고난 너머에 기쁨이 있다’(Joy beyond Suffering)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표기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에서 ‘즐거워한다’(ἀγαλλιάω)가 기쁨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말하자면, “너무 기뻐서 소리치고 춤추며 땀 수밖에 없는 최상의 기쁨”을 가리

60) 아홉 번째 복은 우선 그 내용이 길다. 팔 복은 각각 한 구절이지만, 아홉 번째 복은 그 내용이 두 구절이다. 팔 복의 청취자는 제삼자이지만, 아홉 번째 복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다. 짝막한 두 구절 속에 이인칭인칭대명사 복수형 “너희”(ὁμεῖς)가, 우리말 번역의 경우, 다섯 번이나 나온다. 게다가 팔 복의 복은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복이지만, 아홉 번째 복은 ‘장차 누리게 될’ 미래의 보상을 향한 약속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견디어 내는 “너희”는 하늘에서 큰 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참조, 눅 6:22-23).

61) Estrada, “The Last Beatitude,” 188.

62) 위의 책, 190.

키는 글자라는 지적도 예사롭지 않다.⁶³⁾ 여기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라’라는 지시를 ‘기뻐하기 시작하라’로 새기려고 한다.⁶⁴⁾ 이 글자에 담겨 있는 ‘지속적인 기쁨’이라는 뜻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기뻐하라’로 바꿔서 품으려고 한다. 예수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일뿐더러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과 병행하는 누가복음 6장 23절이 마태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를 “그날에 기뻐하라”로 풀어놓았다는 사실도 우리 논의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시련과 환란과 박해는 종말에 가서 우리에게 될 기뻐하기의 들머리가 된다. 오늘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날에 가서야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주어졌지만, 아직 아니(already, not yet)’라는 종말론적 긴장감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기쁨은 구원받음의 감격을 담아놓은 그릇이다. 그 감격이 종말에 온전히 실현된다.

3. 맺음말, 기쁨의 영성·기쁨의 신학

구약 신앙의 로고스는 하나님의 구원사(창조 → 출애굽 → 가나안 땅 정착 → 심판과 추방 → 귀환 → 화해와 속죄 → 새 창조)로 정리된다(신 26:5-9; 느 9:7-31; 사 65:17-25). 이 로고스의 가락은 그 말씀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따라서 창조

63) 최태영, “예수의 기쁨- 감추인, 최상의, 영원한 기쁨,” 9, 14. 최태영은 마태복음 5:11-12가 말하는 기쁨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 시간은 중요한 순간이 되며, 위대한 기쁨의 순간이다. 이것은 세상과 그리스도와의 대결이며 영원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이런 순간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별이 아니라 영광이다”(9쪽).

64) 헬라어 ‘하이레티’(χαίρετε)의 문법적 형태는 예수께서 언급하신 기쁨이 ‘지속적인 기쁨’이라고 전한다. 최태영, “예수의 기쁨 - 감추인, 최상의, 영원한 기쁨,” 8.

(長調)가 되기도 하고 단조(單調)가 되기도 하다.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온전히 구현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눅 2:10), 곧 복음이 되었다. 로고스의 본질이 기쁨이라는 것이다.

구약 신앙의 파토스는 출애굽의 해방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드러난다(신 12:4-7; 시 104:1-35). 이 파토스가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의 승리가 주는 기쁨을 누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뻗어나갔다. 구약 신앙의 에토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환대에서 꽃을 피웠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사랑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등을 기꺼이 품는 공동체의 의(義)로 펼쳐가라고 주문하였다(렘 7:5-7; 암 5:14-15; 미 6:8). 이 에토스가 골고다의 십자가로 상징되는 고난·좌절·시련·버림받음·슬픔·외로움 등을 기쁘게 감당하는 삶으로 전개되었다. “삶이 기쁨인 것은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다. 삶이 기쁨인 것은 그것으로 인해 억압받는 자들과 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이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근거가 화해케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이다. 기쁨은 고난, 고통과 함께 간다. 십자가의 신학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⁶⁵⁾

구약의 이스라엘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기뻐하였다(시 19:7-10; 119:1-176).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 지향적이었던 종교의 구심점이 사라지자, 토라를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토라의 기쁨”(Joy of the Torah)을

65) Jürgen Moltmann, *Die ersten Freigelassenen der Schöpfung. Versuch über die Freude an der Freiheit und das Wohlgefallen am Spiel* (München: Kaiser, 1971), 69, Daniel Louw, “The Search for Happiness: Towards a Practical Theology of Joy: Faith Seeking Beatific Happiness - *Fides Quaerens Beatitudinem*,” *International Journal of Practical Theology*, 24:1(2020), 130에서 거듭 인용.

민족의 살길로 붙잡았던 자들이 등장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 수렴해야 한다. 토라를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역사의 무대에 새롭게 부상한 것이다. 성전 대신 토라가, 제단에 바치는 제물 대신 토라 공부(공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은총(sola gratia)이 되었다.⁶⁶⁾ 토라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토라를 읽고 익히는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은 삶에서 우러나오는 신비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토라 공부(공부)가 기쁨의 원천이 된 것이다.

신학은 영성을 품은 학습이어야 한다. 하나님에 관하여 논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품지 않는다면 신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사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말씀 공부(공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歷史, 役事)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배움이 아니다. 신학(神學)은 시학(詩學)이어야 하고, 시학은 심학(心學)이어야 한다.⁶⁷⁾ 신학은 신앙공동체 안팎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Homo cum Deo)으로 빚어내는 소중한 물레가 되어야 한다.⁶⁸⁾ 그 물레를 아우르는 기운이 하나님의 영(יְהוָה, 시 104:30)이다. 기쁨의 신학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기쁨의 영성을 거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쁨의 신학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기쁨의 신학은 기쁨을 ‘살려내는’ 원천이 되어야 한다.

구약에서 기쁨은, 어의론적으로는,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느낌(feeling)이나 감정(emotion)이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주어지

66)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Philadelphia: Fortress, 1977), 33-238.

67) 왕대일, 『기독교 경학(經學)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7-42, 299-324.

68) 위의 책, 303.

는,’ 또는 사람 마음에 ‘채워지는’ 기운(spirit)이다(시 4:7; 21:1). 기쁨의 그릇이 감정이기는 하지만, 구약의 말씀에서 사람의 감정을 이끄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구약의 증언에서 기쁨이 드러나는 현장은 세속의 일상이지만, 그 기쁨의 원동력은 세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정녕 기쁨의 주체가 되고 기뻐하기의 주인공이 된다.

기쁨은 세상살이를 이겨가는 삶의 표정이지만, 그 표정의 속내는 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총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진정 기뻐할 수 있다(습 3:17). 구약의 언어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증언한다(출 25:8, 22; 29:43).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구약의 정음(正音)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요 1:14) 신약의 복음(福音)으로 구현된다. 주 하나님을 알고 맞이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구약이 말하는 기쁨이다. 기쁨은 신학의 차림표가 되어야 한다.

히브리어 어의론에서 기쁨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치지 않는다. 기쁨이 물려온다는 것은, 기쁨이 용솟음친다는 것은, 기쁨의 속내가 정적이기보다는 동적이고 감각적이기보다는 역동적이며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기쁨은 혼자서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고, 나누는 생명의 기운으로 퍼져 나간다. 그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몸에 생기(חַיִּים נִשְׁמָה)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사람은 비로소 생령(נֶפֶשׁ חַיָּה), 살아 있는 영, 생기가 넘치는 존재가 되었다(창 2:7). 기쁨은 인간의 삶에 생기가 넘치게 하는 기운(에너지)이다. 기쁨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기(氣), 기운(氣運), 생기(生氣), 생명의 에너지다.

이런 히브리어의 쓰임새가 우리말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말의

기쁨은 사전적으로는 ‘마음의 즐거움’이지만, 기쁨을 꾸미거나 풀이하는 서술어와 함께 그 용례를 살펴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리말은 그냥 ‘기쁘다’라고만 하지 않고, ‘기쁨이 고이다,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용솟음친다, 기쁨이 넘쳐흐른다, 기쁨이 짝 찼다’라고 말한다. 기쁨을 사람의 내적 감정으로 단정하지 않고 사람의 속내를 짝 채우고 주도하는 기운(氣), 생기, 에너지로 간주한다.

기쁨은 기쁨의 반대말인 슬픔과 견주어서 살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늘 탄식이 도사리고 있다(렘 15:16-17). 슬픔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다. 기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듯이 슬픔도 단순한 느낌은 아니다. 우리말도 슬픔을 가리켜 ‘슬픔에 잠기다, 슬픔에 젖다, 슬픔에 절다’라고 하지 않는가. 슬픔도 기쁨처럼 일종의 기운이다. 슬픔은 사람살이의 기운을 기쁨의 반대 방향으로 쏠리게 한다. 슬픔이 삶의 좌표를 아래(下)로 향하게 하는 기운이라면, 기쁨은 삶의 좌표를 위(上)로 치솟게 하는 기운이다. 기쁨은 부풀어 오르지만, 슬픔은 가라앉혀야 한다. 기쁨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슬픔은 사람의 고개를 아래로 떨구게 한다. 기쁨의 현상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약은 기쁨의 현장으로 성속(聖俗)을 아우른다. 기쁨의 현장은 일상이지만, 기쁨의 동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기쁨의 기(氣)로 충만한 자는 그 기운을 가지고 일상을 기뻐하기의 현장으로 세워나간다. 그 과정에서 기쁨은 슬픔과 반대되거나, 슬픔과 공존하거나, 슬픔과 대조되거나, 슬픔과 대비를 이루거나, 슬픔을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주체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구약에 수록된 기쁨의 현상은 다섯 유형으로 정리된다.

1) 기쁨을 눈물의 반대말로 보기(Joy and Grief,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 전 3:1-8).

2) 기쁨을 눈물의 열매로 보기(Joy after Grief, 눈물 이후의 기쁨, 시 126:5-6).

3) 기쁨을 눈물의 승화(昇華)로 보기(Joy despite Grief, 눈물을 흘려야만 함에도 기뻐하기, 합 3:16-18).

4) 눈물을 기쁨의 모판으로 보기(Joy with Grief, 눈물과 함께 기뻐하기, 느 8:8-12),

5) 기쁨을 눈물의 초월(超越)로 보기(Joy beyond Grief, 눈물 너머에서 기뻐하기. 사 65:17-20).

구약이 전하는 기쁨에서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세상살이를 가리켜 헛되다고 외치는 전도서의 증언이다(전 1:2-7). 기쁨이라도, “낙($\eta\eta\psi$), 웃음($\eta\eta\psi$), 희락($\eta\eta\psi$)”이라도(전 2:1-2), 전도자에게는 다 헛되다. 전도서는 그 헛됨을 구원하는 처방으로 기쁨을 제시한다(전 2:24; 3:12; 8:15; 9:7).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전 3:4)라고 말한다. 여기에서의 “때”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니라 창조신앙에서 되새김 질한 시간의 은총이다.

전도서와는 달리 슬픔과 기쁨의 공존을 원인과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예루살렘의 계절이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는 기간에 성전을 찾아간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의 처지가 메마름에서 풍성함으로 전환되기를 소망하였다. 그런 기대를 담은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eta\eta\psi$) 거두리도다”(시 126:5). 눈물 흘리기를 기쁨의 마중물로 본 것이다.

구약에는 슬픔과 기쁨을 눈물과 웃음의 반어법이나 이분법으로 보지 않고 기쁨을 눈물·슬픔의 승화(昇華)로 보는 증언도 있다. 하박국의 노래는 ‘없음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있음의 진실’로 승화시키는 찬양이다(합 3:16-18). 생존을 위한 먹거리 등이 없는 현실이지만, 하박국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다는 진실로 기뻐하고 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eta\eta\psi$) 청유형)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לִי צְהִי טוֹב)(합 3:18)
3:18).

구약에는 눈물을 기뻐하기의 모판으로 삼는 사례도 있다. 눈물 흘리기와 기뻐하기가 같은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의례(ritual)가 거기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쁨(הִשְׂמִינָה)으로 기쁨의 잔치를 열라고 지시하였다(느 8:8-12).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9, 10).

하나님이 호스트(host)이신 식탁에 게스트(guest)로 초대받은 자들이 서로 어울려 기쁨의 교제(koinonia)를 나누며 즐거워하라(기뻐하라, ἡψα)는 것이다(신 12:7).

구약의 기쁨에는 종말론적 희망이 되는 기쁨도 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기뻐하신다(사 65:19).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וְשִׂי) 즐거워 할지니라(וְגִיל)”라고 말씀하신다(사 65:18a). 이 기쁨은 오늘 겪는 눈물과 슬픔을 초월(超越)하는 자들이 그날에, 그곳에서 누리게 될 기쁨이다. 이 기쁨은 이른바 산상수훈의 아홉 번째 복에도 나온다(마 5:11-12).

기쁨의 신학에는 기쁨의 영성(spirituality)이 요청된다. 기쁨의 사다리를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기쁨의 생기로 ‘눈물과 기쁨의 이분법’(슬퍼할 때와 기뻐할 때)→ ‘눈물과 기쁨의 인과응보’(눈물 이후의 기쁨)→ ‘기쁨, 눈물의 승화’(눈물을 흘려야만 함에도 기뻐하기)→ ‘눈물, 기쁨의 모판’(눈물과 함께 기

빠하기)→ ‘기쁨, 눈물의 초월’(눈물 너머에서 기뻐하기)로 올라서야 하기 때문이다. 기쁨의 영성은 기쁨의 신학을 완주하게 하는 근원이다.

오늘 살이에 급급한 인생들은, 세상살이에 연연한 인간들은, 사람살이에 목숨을 건 존재들은 기쁨의 본질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을 지녀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기쁨의 본질을 결정론이 아닌 창조론으로(슬퍼할 때와 기뻐할 때),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눈물 이후에 기뻐하기), 역설이 아닌 신앙의 진실로(눈물을 흘려야만 함에도 기뻐하기),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눈물과 함께 기뻐하기), 신정론이 아닌 종말론(눈물 너머에서 기뻐하기)으로 뿔어나간다. 눈물의 사다리는 기쁨의 영성 없이는 오를 수 없고, 기쁨의 신학은 기쁨의 영성이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기뻐하기’는 뭉토스(mythos)다. 신비하기 때문이다. 신비롭기 때문이다. 기쁨은, 기쁨을 아는 것(로고스)으로 그치지 않고, 기쁨을 마음에 품는 것(파토스)으로 머물지 않고, 기쁨을 삶의 가락(에토스)으로 풀어가야 한다. 뭉토스란 글자를 신화(myth)의 범주에서 헤아리지 말라. 성경에서 뭉토스는 로고스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뭉토스는 “이성과 논리의 밖에 서서, 현실과 이상의 밖에 서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다.⁶⁹⁾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의 이야기를 이성과 논리와 과학으로 비(非)신화화시키지 말라.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기쁨의 사다리를 오르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기한 기운이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신비·신기(神氣)·신바람에 채워져야 한다. 기쁨의 뭉토스에 붙들려야 한다. 성령으로 채워져서 두 발로 서있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생명을 살게 하고, 기쁨의 사역자가 되는 신비한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 주시는 기쁨의 신

69) 위의 책, 73-77.

바람에 우리 마음과 몸이, 우리 생활과 삶이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 삶의 환경은 여전히 만만하지 않다. 세상의, 세속의 기상도는 여전히 우울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달인’(joy experts)이 되어야지 ‘기쁨을 쫓아내는 자’(joy exorcists)나 ‘기쁨 밖에 머무는 자’(expats)가 되어서는 안 된다.⁷⁰⁾ 빛은 어두울수록 밝게 비친다. 기쁨도 마찬가지다. 삶이 힘들수록 기쁨은 우리 삶을 밝게, 맑게, 곱게 하는 원천이 된다.

우리 노래 판소리에 ‘더늌’이라는 용어가 있다. 소리꾼이 노랫말을 새로 만들거나 소리 가락을 새로 다듬는 것을 일컬어 ‘더늌’이라고 한다. 예컨대 같은 ‘흥부가’라고 해도, 소리꾼에 따라서, 명창에 따라서, 노랫말의 높낮이가 달라지고, 노랫가락의 장단(長短)이 달라지는 것은 판소리의 ‘더늌’ 때문이다. 판소리가 소리꾼의 ‘더늌’에 의해서 풍부해지듯이 기쁨의 영성도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더늌’처럼 풍부해져야 한다(벧전 4:13-14).

70) Jeffrey A. Oschwald, “Faithful Witness in Suffering and Joy,” *Concordia Journal* 41:2(2015), 124-135, 특히 125-126. Joy Expats는 “expatriates”의 구어체 약어로 원래는 고향을 등지거나 고향에서 쫓겨난 자들을 가리켰지만, 통상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 땅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킨다.

참고문헌

-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43(2012), 82-104.
- 김도훈, “기쁨과 행복의 긍정적 삶(생명)의 신학,” 「장신논단」 49:4
(2017.12), 143-153.
- 김도훈, “행복, 기쁨, 플러리싱(Flourishing), 그리고 교회: 신학과
긍정심리학과의 대화에 기반한 긍정 교회론의 시도,” 「선교와 신
학」 42(2017), 71-99.
- 김명용, “기쁨의 신학(A Theology of Joy),” 「온신학회 10주년 기
념 2024년 온신학회 여름학술대회」 (2024년 8월 19-20일, 대구
호텔인터불고호텔), 1-27.
- 김명용, “21세기 세계교회의 위기와 극복 방향,”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2024년 4월 26-27일, 인천 네스트호
텔), 6-21.
- 김선종, “전도서의 기쁨-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의 사이,” 「온신학회
10주년 기념 2024년 온신학회 여름학술대회」 (2024년 8월
19-20일, 호텔인터불고 대구), 1-10.
- 김성봉, “기쁨의 신학 개괄,”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2024년 4월 26-27일, 인천 네스트호텔), 22-38.
- 김정우, 『시편 주석 III』.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10.
- 박정관, “구약성경의 기쁨,” 「성서마당」 120(2016), 119-123.
- 박형국, “기쁨의 신학적 서사에 대한 소고,” 「신학과 사회」 31:4
(2017), 45-75.
- 방기민, “시편 126편 초막절 배경에서 읽기,” 「구약논단」
25:1(2019), 151-182.
- 배희숙, “하박국 1-2장의 형성사 고찰,” 「구약논단」 18:4(2012),
96-120.
- 안근조, 『히브리 지혜전승의 변천과 기독교의 기원』. 서울: 동연,

- 2016.
- 오경웅, 송대선 옮김·해설, 『시편사색』. 의왕: 꽃자리, 2019.
 - 王大일, 『구약성경의 종말론』. 서울:한국성서학연구소, 2017,
 - 王大일, 『구약신학』, 개정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105-111.
 - 王大일, “구약의 눈물,” 「그말씀」 (2024. 11), 72-85.
 - 王大일, 『기독교 경학(經學)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王大일, 『다시 듣는 토라』. 서울:한국 성서학 연구소, 1998, 개정판 2008.
 - 王大일, 『신명기 강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王大일, 『전도자의 질문, 전도서의 해답』. 서울: KCM, 2014.
 - 우제국, “기쁨의 신학,”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4(1990.12), 148-169.
 - 최종원, “복서 셈어 문학과 비제사장계 문학사 관점에서 바라본 전도서에 대한 새로운 연구,” 「구약논단」 30:1(2024), 209-248.
 - 최태영, “예수의 기쁨- 감추인, 최상의, 영원한 기쁨,” 「온신학회 10주년 기념 2024년 온신학회 여름학술대회」 (2024년 8월 19-20일, 대구 호텔인터불고호텔), 1-14.
 - 장흥길, “신약성경의 ‘기쁨,’ χαρά, χαίρειν을 중심으로,” 「성서마당」 120(2016. 12.), 124-128.
 - 홍성혁, “전도서 속에 나타난 ‘헤벨’의 아이러니와 그 수사적 기능,” 「구약논단」 17:4(2011), 33-56.
 - Anderson, Gary A. A Time to Mourn, A Time to Dance: The Expression of Grief and Joy in Israelite Religion.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91.
 - Betz, H. D. The Sermon on the Mount. Minneapolis, ME, 1995.
 - Estrada, Bernardo. “The Last Beatitude. Joy in Suffering,” Biblica, 91:2(2010), 187-209.
 - Fox, M. V.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Up. A Rereading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Cambridge: Wipf & Stock Publishers, 1999.

- Kugel, J. "Topics in the History of the Spirituality of the Psalms," in Green, A. ed., *Jewish Spirituality from the Bible through the Middle Ages*. New York: Crossroads, 1986, 113-144.
- Lee, Eunhy. "Joy samakh, simikhah, χαίρω chairō, χαρά chara,"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3, 417-418.
- Louw, Daniel. "The Search for Happiness, Towards a Practical Theology of Joy: Faith Seeking Beatific Happiness - Fides Quaerens Beatitudinem," *International Journal of Practical Theology*, 24:1(2020), 111-134.
- Oswald, Jeffrey A. "Faithful Witness in Suffering and Joy," *Concordia Journal* 41:2(2015), 124-135,
- Peterson, D. Haggai and Zechariah 1-8,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4.
- Sanders, E. P.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Philadelphia: Fortress, 1977.
- Sanders, J. A. *From Sacred Story to Sacred Text: Canon as Paradigm*. Philadelphia: Fortress, 1987; Wipf and Stock, 2000.
- Seow, C. L. "Linguistic Evidence and the Dating of Qohele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5 (1996), 653-54.
- Shields, Martin A. *The End of Wisdom: A Reappraisal of the Historical and Canonical Function of Ecclesiastes*.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 Sweeney, Marvin A. "Structure, Genre, and Intent in the Book of Habakkuk," *Vetus Testamentum* 41:1(1991), 63-83.
- Whitehead, Philip, "Habakkuk and the Problem of Suffering: Theodicy Deferred," *Journal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10:2(2016), 265-282.

논 찬

김성봉 박사의
“기쁨의 신학 개괄”과
왕대일 박사의
“기쁨의 영성, 기쁨의 신학
구약신학적 고찰”에 대한
논찬

논찬자 : 김 선 권 박사

■ 김선권 박사 프로필 ■

- ▲ 호남신학대학교 (Th.B.)
- ▲ 전남대학교 (M.A.)
- ▲ 장로회신학대학교 (M.Div., Th.M.)
-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신학대학원 신학박사
(Th. D.) 조직신학 전공
- ▲ 현,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 ▲ 현,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김성봉 박사의
“기쁨의 신학 개괄”과
왕대일 박사의
“기쁨의 영성, 기쁨의 신학
구약신학적 고찰”에 대한 논찬

김 선 권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1. 기쁨은 인간의 주요한 감정 중 하나이다.

기쁨은 사람이 일상에서 누리는 감정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과 관련하여 세상에서 기쁨을 누린다. 기쁨은 믿음 생활의 열매이고 결과이다. 믿음을 가진 자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 기쁨은 좋은 결과가 있을 때나 평탄하고 문제없을 때만 가지는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 환난, 역경 가운데서도 성도는 기쁨을 경험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롬5:3)

기쁨은 비신자와 신앙인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지만, 신앙인은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참여할 때 진정한, 충만한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답한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인간 존재의 목적과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다. 후자가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해서 정작 하나님 그분 자신과의 관계없이, 의무와 사명의 차원으로만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영원토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하다. 사람들이 누리는 지상의 기쁨은 일시적이며 덧없고 사라지는 기쁨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현재의 삶에서 주님께 얼마나 참여하느냐와 관계될 뿐 아니라, 장차 주님을 얼굴로 보면서 완전한 기쁨에 도달할 것이다.

하나님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즐거움도 회심해야 한다. 회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에게 속함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서 속하였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자체를 애착하며 즐거워한다. 이 점에서 회심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회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기도, 말씀 묵상과 같은 영적 활동이 의무의 차원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 연구가 정말 즐거운 것이다. 기도가 행복한 것이다.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것이다. 즐거움이 달라진다.

기쁨은 믿음 생활의 본질적 요소이지만, 이 주제가 신학의 주제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조직신학의 주제를 살펴봐도 기쁨은 작정, 섭리, 예정, 구원, 칭의, 성화, 교회, 종말 등과 같은 직접

적 신학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대부분의 신학자에게 기쁨은 다양한 신학 주제들과 성경 해석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제이지만, 단독으로 이 주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에서 기쁨을 주제로 다루는 두 연구자의 연구는 의미가 있다. 두 연구는 서로 보완한다. 김성봉 교수는 기쁨의 신학 자체를 개괄하며, 기쁨을 실제로 경험할 것을 요청한다. 왕대일 교수는 기쁨의 영성, 기쁨의 신학-구약신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쁨의 어원을 연구하고, 기쁨을 눈물과 연계한 연구를 하였다.

2. 김성봉 교수는 존 파이퍼가 쓴 하나님의 기쁨에서 스쿠컬의 한 문장에서 기쁨의 신학의 중요성을 말한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쁨은 바흐를 통해서 예배 음악, 찬송가로 들어온다. 이런 영향일 수 있지만 다양한 찬송가에 기쁨의 주제가 반영된다 (95장, 182장, 191장, 431장 등) 기쁨은 찬송가를 통해서 예배 때 불리어진다.

술라터는 예수의 기쁨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고, 그의 신학은 기쁨의 신학이라 불렸다. 그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의 질적 차이를 인식하는 설교를 하지 않기에 청중과의 상관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의 질적 차이가 무엇이며, 그것이 설교에서 어떻게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필요하다.

루이스의 기쁨 담론은 개인적 측면에 머물지 않고 사회정치적 특징을 담고 있다. 기쁨은 개인의 경험이지만, 초월적이며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타자를 향한다.⁷¹⁾ 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예배이다. 루이스의 관점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기쁨을 개인적 감정체험으로 여기는 한계가 있었는데, 한국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기쁨을 자기 중심성을 넘어 사회적으로 타자 중심성으로 방향 지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남긴다.

바르트에게 기쁨은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기쁨이 종말론적이며 성령론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모든 기쁨이 원칙적으로 미리 기뻐하는 것으로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기쁨”이며, “기쁨은 성령의 신비한 일”이다. 몰트만도 미래 세계를 미리 맛보며 기뻐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였다. 파이퍼는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결합됨을 주장한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영적이지만 창조 세계(물질)을 창조한 하나님보다 더 영적인 시도는 영지주의가 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지나치게 영적인 것은 육적인 차원과 결합한다.

볼프는 기쁨 담론에서 좋은 삶과 풍요로운 삶의 중대한 결과물로서 기쁨을 보았다. 좋은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것들 없이 단순히 기쁨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의 결과로서 기쁨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옳음(의)와 평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기쁨의 신학이 주관적 만족에 머물지 않게 한다.

기쁨의 신학을 개괄에서 다루어진 주요 사람들은 스쿠걸, 바흐, 솔라터, 토레이, 루이스, 바르트, 몰트만, 파이퍼, 볼프 등이다. 여기에 나타난 인물은 전적으로 신학자 중심은 아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저자들을 다루었는가? 왜 여기에 고전 신학자들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뱅 등을 다루지 않았는가 묻게 된다. 김성봉 교수는 구약성경의 기쁨을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71) 바르트도 기쁨이 사회적으로 여겨, 나뉘지고 퍼져야 하는 것이었다.

하였다.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분량에 있어서는 충분하고, 시간에 있어서는 영원하다. 신약성경의 기쁨은 제자들의 기쁨을 비워내고 스승이신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기독교적 특징이 강하다. 연구자는 계속해서 신약성경에 나타난 기쁨을 다루었는데, 이것이 가진 종합적 특징은 제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봉 교수는 기쁨의 신학의 의의를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기쁨의 신학의 의의는 시대적 요청과 성경의 관심 복원, 주의로 나뉘지고, 마지막 것은 다시 네 가지 주의를 환기시킨다. 의의에서 제시된 것은 이 문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기쁨의 주제가 강조되면서, 기쁨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은 이 주제를 과장하고 과도하게 해석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어떤 새로운 신학의 주제이든 절대시하려는 순간 그 개념의 본래적 의도와 멀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기쁨의 신학을 실질적이며 경험적인 주제로 연결되기를 원한다. 즉,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믿음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김성봉 교수의 기쁨의 신학 개괄은 말 그대로 이 주제에 대한 개괄이라서, 신학자들의 기쁨의 주제를 발췌할 때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분명하게 피력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의의와 결론에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지만, 신학자들을 다룰 때, 그런 관점이 앞서 제시되었으면 더 좋은 연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기쁨의 신학의 개괄은 기쁨에 대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신학적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느낌이 든다. 구속사적 견해가, 기쁨의 신학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김성봉 교수가 마지막에 기쁨을 경험하는 현실을 제시하였는데, 역으로 성도(교회)의 삶에서 충분한 기쁨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게 된다.

3.王大일 교수는 구약학자로서 구약의 기쁨과 신약의 기쁨을 비교하며 연구를 시작한다.

구약에서 기쁨은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여기며, 기쁨을 누리는 영역은 세상을 포함한다. 반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기쁨을 주시기에 구원 자체가 기쁨이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기쁨은 의미나 방향이 다르지 않고, 방점이 다르다.王大일에 따르면, 구약이 “하나님 신학 안에서의 기독론”을 다루지만, 신약은 “기독론 안에서 하나님 신학”을 증언한다. 여기서 논찬자는 이러한 개념적 구별이 기쁨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기독론 안에서 하나님 신학이라면, 기쁨이 그리스도와 구원을 포함하면서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구조이지만, 신약에서 기쁨에 대한 주제가 그렇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王大일 교수에 따르면, 구약에서 기쁨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총의 결과이다. 기쁨의 동력은 초 일상적인 하나님에게서 오며, 이것을 누리는 장소는 삶이다. 기쁨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자리는 예배이다. 기쁨은 사람들이 더불어 누리는 감정이며, 일상의 표정이며, 몸의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 앞서王大일 교수는 기쁨이 감정이 아닌 기운이라고 했지만, 조금 후에 사람들이 더불어 누리는 감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기쁨은 감정인가? 아니면 기운인가? 기운을 만들어내는 감정인가? 자기에서 비롯되는 것은 감정이라면, 자기 밖에서 채워지는 것은 기운이라고 하였다. 출처를 자기 밖으로 여긴다고 해서 기쁨이 감정이 아닌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을까? 설명

이 필요해 보인다.

왕대일 교수는 기쁨의 실체를 정적이지 않고 동적인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명사 기쁨보다는 동사 “기뻐하기”를 제시한다. 현실의 삶은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기때문에, 머릿속에서 개념이 아닌, 실제로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왕대일 교수는 기쁨을 언어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 현실에서 살아내는 차원으로 끌어간다. 왕대일 교수는 기쁨의 신학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기쁨을 살려(살아)내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왕대일 교수는 전도서의 때와 기한을 다루면서, ‘시간의 순환’(cycle of time)과 ‘순환하는 시간’(cyclic time)을 구별한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시간의 순환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순환하는 시간을 산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개념의 구별이 보다 선명할 필요가 있다. 뒤에 언급된 시간의 흐름에 머무는 것이 “시간의 순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질서로 승화되는 것이 “순환하는 시간”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가 불분명하다.

반면 전도서의 큰 관점을 전도자가 1) 헛되다, 2) 기쁨을 누리라 3)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로 제시했다. “헛되다고 여겨지는 현실이지만, 기쁨을 누리고 누리는 때가 있음을 깨달은 자는, 정녕 해 아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틀에서 전도서 읽기를 한다면, 성도의 삶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방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왕대일 교수는 시편 126편을 다루면서 기쁨을 눈물과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눈물과 기쁨을 원인과 결과로, 시간적 선후 관계로 보았다. 이 논리에서 눈물은 기쁨의 마중물이 되고, 눈물은 기쁨 누리기의 디딤돌이 된다. 즉, 기쁨은 눈물의 열매이다.

그는 더 나아가, 하박국 3장을 다루면서 “눈물을 흘려야 함에

도 기뻐하기”를 말하며, 눈물의 승화를 주장한다. 눈물의 승화로서의 기쁨은 역설적인 기쁨이다. 기쁨의 역설은 주 여호와가 힘인 주장으로 귀결된다. “세상에 현존하는 악 탓에 실존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굳게, 굳게, 굳게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다.” 눈물을 흘려야 함에도 기뻐하기는 결국 신앙의 노래이다.

왕대일 교수는 눈물과 함께 기뻐하기(제의적 기쁨)와 눈물 너머에서 기뻐하기(종말론적)로 나아간다. 전자는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슬픔과 더불어 기쁨이다. 기쁨의 의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 마음에 채우는 의식이다. 눈물은 자기반성의 표정이고, 눈물을 그치고 기뻐하는 것은 자기 변혁이다.

왕대일 교수의 논문은 기쁨을 눈물의 맥락에서 접근하며, 구약성경의 전도서, 시편, 하박국, 느헤미야, 스가랴, 이사야 등에서 눈물과 기쁨의 신학적 관계성을 창의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역사적이면서도 주석적으로 균형 있게 다루었다. 게다가 독자의 (눈물의) 현실에서도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하고 적용점이 강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1) 눈물과 기쁨의 이분법
- 2) 눈물과 기쁨의 인과응보
- 3) 눈물의 승화로서 기쁨
- 4) 기쁨의 모판인 눈물
- 5) 눈물의 초월.

단계적이면서 완성되는 기쁨의 신학이다.

이 글은 기쁨의 신학은 결국 기쁨의 영성으로 끌어올려져야 함을 천명한다. 저자에게 기쁨은 궁극적으로 뭇토스 신비이다. 기쁨은 신비이다. 기쁨의 사다리에 올라 신비를 체험한다. 하지만 이 기쁨의 사다리는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하늘로 탈주하지 않는다. 두 발로 서 있는 땅의 현실에서 기쁨의 영성과 신비가 녹아든다.

“성령으로 채워져서 두 발로 서 있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생명을 살게 하고, 기쁨의 사역자가 되는 신비한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 주시는 기쁨의 신바람에 우리 마음과 몸이, 우리 생활과 삶이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논문은 논문을 넘어서, 논찬자에게 기쁨의 신학의 걸작으로 다가왔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여 준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한국기독교학술원 소개

1. 설립 취지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와 관련된 학술연구가 한국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추진하는 연구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학문이 세속학문보다 우수함이 유럽의 문명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연구기관이 없으므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성실되어 가고 있으며, 기독교인 가운데 우수한 학자들은 사회학술계에 진출하여 세속학문을 연구하는 데에만 전력을 쏟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저력과 추진력이 기독교학문을 연구함으로써 촉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발전되었으나 질적으로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발전에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계의 몇몇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뜻을 같이하여 기독교 학문을 진작시켜 기독교 복음과 정신이 국가와 사회의 정신적 근간이 되게 함으로써, 한국교회와 민족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해 이 학술원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2. 한국기독교학술원의 조직구성

1) 이사회

이사장: 이승택, 원장: 손인웅,

이 사: 김성봉, 라정찬, 손인웅, 신정일, 신종규, 안조현,
유준수, 이승택, 조성욱, 홍성혁

감 사: 박행민, 박현용

사무국장: 정일환 (가나다순)

2) 학술위원회

학술위원장: 김명용, 서기: 노영상, 회계: 지형은

위원: 김명용, 김성봉, 노영상, 박보경, 안명준, 왕대일,
이병수, 이승구, 이신건, 임희국, 지형은 (가나다순)

3) 집행 부서

원장, 부원장, 사무총장

(1) 총무부 (2) 관리부 (3) 연구위원회 (4) 출판부

3. 사업

1) 한국기독교학술상 제정

국가적인 학술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학술원상이 수여하고 있으나, 기독교의 학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거한 학문을 세워나가야 하는바, 현재도 각 분야에서 신앙 있는 기독교학자로서 크게 활동하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그러한 기독교적 학문을 진작시키기 위해, 한국기독교학술상을 제정하여 국내외적으로 기독교학문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신학자, 목회자들 및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노고에 기리기 위하여 분야별로 이 상을 수여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학술상 수상자>

1회 박준서, 2회 이원설, 3회 이상현, 4회 김영길, 정근모,
5회 정진경, 학술대상 이종성, 6회 민경배, 7회 조종남, 라정찬,
8회 박창환, 9회 박재훈, 10회 조신권, 11회 Richard Yoon,
12회 이광순

2) 학술 세미나 및 공개강연

본원은 기독교계가 필요로 하는 신학적 연구와 기독교 문화진흥을 위해 국가적,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선정하여 이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여온 국내외 학자들을 초청하여 매해 2회씩 공개 강연을 실시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3) 학술 연구지 발간

본원은 현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대한 대안을 찾아 연구하며,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의 새로운 신학운동을 소개함과 동시에, 교회발전에 도움을 주는 비전을 제시하는 학술 연구지의 발간을 통해 한국의 신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4)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지원

국제적인 대학 수준의 교육을 지향하며 몽골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전인적인 능력을 지닌 성실한 지성인이 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울란바타르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5) 회관 건립

본원은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24만 평 임야에 대지 약 2만 평, 건평 약 5천 평 규모의 학술연구관을 건축하며 부속으로 3,000~5,000명 수용가능한 세미나실, 숙식 가능 시설 등을 건립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강연회 역사

■ 제1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종말론
- ▲ 일 시: 1991년 3월 25일(월)~26일(화) 오후 7시~9시30분
- ▲ 장 소: 영락교회 선교관
- ▲ 강 사: <첫날>
과학적 견지에서 본 종말론-김용준 박사(고려대) 신학
적 견지에서 본 종말론-문상희 박사(연세대)
<둘째 날>
역사철학적 견지에서 본 종말론-이원설 박사(한남대)
신학에 나타난 종말사상-이종성 박사(학술원)

■ 제2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남북통일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 ▲ 일 시: 1991년 10월 21일(월) 오후 6시30분~9시
- ▲ 장 소: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홀
- ▲ 강 사: 유엔 가입과 남북관계 전망-강인덕 박사
(극동문제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통일운동-강문규 사무총장
(대한YMCA 연맹)
하나님의 세계 통치와 남북통일-이종성 박사(학술원)

■ 제3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정통, 사이비, 이단
- ▲ 일 시: 1992년 3월 12일(목) 오후 6시30분~9시
- ▲ 장 소: 영락교회 선교관
- ▲ 강 사: 성서적 견지에서 본 정통과 사이비와 이단-
신성종 목사(충현교회)
교리적 견지에서 본 정통과 사이비와 이단-
이종성 박사(학술원)

■ 제4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과연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 ▲ 일 시: 1992년 9월 21일(월) 오후 2시~4시30분
- ▲ 장 소: 한국 프레스 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강 사: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성경신학적 비판-
이종윤 박사(서울교회)
한국교회사에 있어서의 종말론의 제형-
조향록 목사 (초동교회)
기독교 역사관과 종말론-이종성 박사(학술원)
* 문화부로부터 200만원 지원받음

■ 제5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도전받는 한국교회와 신학
- ▲ 일 시: 1992년 11월 23일(월) 오후 6시~9시
- ▲ 장 소: 새문안교회 교육관
- ▲ 강 사: 뉴에이지 운동-이종윤 박사(서울교회)
종교다원주의-손봉호 박사(서울대)
포스트모더니즘-이종성 박사(학술원)

■ 제6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한국 교회에서 있어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
- ▲ 일 시: 1993년 5월 31일(월) 오후 3시30분~5시30분
- ▲ 장 소: 여전도회관 2층 김마리아 기념관
- ▲ 강 사: 교회 교역에서의 여성의 사명과 역할-오성춘 교수(장신대)
성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여성-이연옥 권사(영암교회)

■ 제7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표준 새 번역 성경에 대한 평가
- ▲ 일 시: 1993년 9월 13일(월) 오후 3시~6시
- ▲ 장 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
- ▲ 강 사: 표준새번역성경 구약 번역에 관한 비평적 고찰-
김중은 교수(장신대)
성서 번역의 이론에 근거하여-이상훈 교수(서울신대)
표준 새 번역 성경의 문제점-김재남 교수(세종대)

■ 제8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신학과 과학-대립인가 상호보완인가?
- ▲ 일 시: 1994년 3월 4일(금) 오후 2시~6시
- ▲ 장 소: 여전도회관 14층 회의실
- ▲ 강 사: 과학과 신학의 알력사-이종성 박사(학술원 원장)
지구의 위기: 과학과 기독교-안철호 박사(전 서울대 교수)
과학, 종교 그리고 신학-나학진 박사(전 서울대 교수)

■ 제9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21세기 한국교회 찬송가를 생각한다
- ▲ 일 시: 1994년 5월 23일(월) 오후 6시 30분-9시 30분
- ▲ 장 소: 여전도회관 14층 대강당

▲ 1부/ 공개강연회

주제강연: 21세기 한국교회 찬송가의 방향-박봉배 박사(감신대)

제1강연: 예배에 있어서 찬송가의 위치와 의의-

전희준 교수(중앙대 예술대학)

제2강연: 찬송가 토착화의 가능성과 그 범위-

문성모 교수(서울대)

▲ 2부/ 패널토의

패널리스트: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이보철 교수(감신대)

정장복 교수(장신대)

■ 제10회 공개강연회

(개혁신학연구회 · 문화진흥원 공동주최)

▲ 주 제: 칼빈의 교회관

▲ 일 시: 1994년 11월 1일(화) 오후 7시~9시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강 사: Martin A. Schmidt 박사(스위스 바젤대학)

■ 제11회 공개강연회

▲ 주 제: 21세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 일 시: 1995년 3월 17일(금) 오전 10시~12시

▲ 장 소: 여전도회관 510호 학술원 회의실

▲ 강 사: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조요한 박사(전 숭실대 총장)

과학과 종교-김용준 박사(고려대 명예교수)

The Paradoxes of Globalization-

이원설 박사(전 한남대 총장)

▲ 논 찬: 조요한 박사의 논찬-나학진 박사(서울대)

김용준 박사의 논찬-지동식 박사(연세대)
이원설 박사의 논찬-장진호 박사(연세대)

■ 제12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교회와 국가와 천국
- ▲ 일 시: 1995년 6월 1일(목) 오후 3시~5시
- ▲ 장 소: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홀
- ▲ 강 사: 교회와 국가 그 이상적 관계를 위하여-
최종고 박사(서울대)
교회와 국가-민경배 박사(연세대)
신국과 인간 역사-이종성 박사(학술원)

■ 제13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개혁신교회 전통과 한국교회
- ▲ 일 시: 1995년 8월 28일(월)~29일(화)
- ▲ 장 소: 여전도회관 김마리아홀
- ▲ 강 사: 개혁신교회 신학의 전통과 미래-Lochman박사
(스위스 바젤대학 총장)
세계 개혁신교회의 신학과 한국장로교회-김명혁 박사
(합동신학교 교수, 강변교회)
한국장로교회의 일치를 위한 제언-
이종성 박사(학술원 원장)

■ 제14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기독교와 무교는 공존할 수 있는가?
- ▲ 일 시: 1996년 3월 26일(화) 오후 2시~5시
- ▲ 장 소: 한국 프레스 센터 19층 회의실

- ▲ 강 사: 무속의 현대적 이해-서정범 교수(경희대 명예교수)
기독교와 무교의 비교-이종성 박사(학술원 원장)

■ 제15회 공개 강연회

- ▲ 주 제: 21세기 한국기독교대학의 바른 교육에 관한 심포지움
- ▲ 일 시: 1996년 11월 11일(월) 오후 1시~8시 30분
- ▲ 장 소: 햇불선교센터(양재동 소재)
- ▲ 소주제 1/ 한국기독교대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강 사: 한국기독교대학의 공헌과 세속화-송 자 박사(전 연세대 총장)
한국기독교대학의 장래-이종익 박사
(전주대 총장, 한 국기독교대학교협회장)
토론 참석자-김의환 박사(총신대 총장)
정구영 박사(서울여대 총장)
- ▲ 소주제 2/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불가능한가?
강 사: 기독교 세계관-이원설 박사(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장)
기독교와 과학-이충희 박사(한국과학기술원 원장)
토론 참석자-장 상 박사(이화여대 총장)
오병세 박사(전 고신대 총장)
- ▲ 특별강연/ Christian Universities and Globalization-Dr.
Duncan Ferguson(President of Association of
Presbyter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 제16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한글주석성경 출판 이대로 좋은가?
- ▲ 일 시: 1997년 6월 20일(금) 오후 2시~7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회의실
- ▲ 강 사: 해설성경의 문제점과 목회자의 제언-이종윤 박사(서울교회)
성서신학적 입장에서 본 스타디 바이블-
박수암 박사(장신대)

한글해설성경의 편집과 선교적 가치의 문제-

이주연 목사(대한기독교서회)

한글주석성경의 출판 역사와 현황-

신현학(주식회사 아가페출판사)

우리말 해설 성경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

민영진 박사(대한성서공회)

▣ 제17회 공개강연회

▲ 주 제: 한국의 대형교회 지도자상-카리스마적 지도자상

▲ 일 시: 1998년 10월 29일(목) 오후 3시~6시

▲ 장 소: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홀

▲ 강 사: 한국대형교회 성장의 비결-김삼환 목사(명성교회 당회장)

한국대형교회의 성장분석-

명성훈 박사(교회성장연구소 소장)

신학적으로 본 한국교회의 대형교회-

김명용 박사(장신대 교수)

▣ 제18회 공개강연회

▲ 주 제: 교회성장과 성령의 사역

▲ 일 시: 1999년 3월 25일(목) 오후 3시~5시

▲ 장 소: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홀

▲ 강 사: 카리스마와 교회성장-성서적 입장에서-

이종윤 박사(서울교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신약 성서적 고찰-

성종현 박사(장신대)

■ 제19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문학과 성서의 만남
- ▲ 일 시: 1999년 10월 14일(목) 오후 2시~5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강 사: 셰익스피어 『햄릿』의 실존적 인간상과 성서의 영향
-예영수 박사(학술원 부원장)
단테 『신곡』 지옥편에서의 죄와 벌-김명복 박사(연세대)
밀턴 『실락원』에 나타난 성적 인간상-조신권 박사(연세대)

■ 제20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창조신앙과 생명공학
- ▲ 일 시: 2000년 5월 4일(목) 오후 3시~8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강 사: 생명복제기술의 현황과 산업적 이용전망-황우석 박사(서울대)
생명의 신비와 복제인간-권동원 박사(한우리병원 원장)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본 인간복제의 신학적 평가-김균진 박사(연세대)

■ 제21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한국교회의 세습문제에 대한 신학적 조명
- ▲ 일 시: 2000년 10월 26일(목) 오후 3시~6시 30분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강 사: 교회사적 고찰을 통해서 본 교회세습 문제-
주재용 박사(전 한신대 총장)
교회제도와 세습제도-김성수 박사(성공회대 총장)
한국교회와 교회세습-김인수 박사(장신대 교수)
- ▲ 논 찬: 찬성 입장-박동찬 목사(광림교회 부목사)
반대 입장-오덕호 박사(호남신대 교수)

■ 제22회 학술세미나

- ▲ 주 제: 21세기에 있어서의 기독교 신학 성격탐구
- ▲ 일 시: 2001년 2월 15일(목) 오후 2시~6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회의실
- ▲ 강 사: 구미신학의 총체적 특징과 21세기 신학-
목창균 박사(서울신대 교수)
첨단과학의 전통적 신학의 만남-
현요한 박사(장신대 교수)
21세기에 있어서도 성서의 신언성이 견지될까-
이종성 박사(학술원 원장)
- ▲ 논 찬: 한승홍 박사(장신대 교수)
강동수 박사(동신교회 담임)
김종렬 박사(전 영신대 총장)

■ 제23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미.아 전쟁-종교전쟁인가? 문명간의 충돌인가?
- ▲ 일 시: 2002년 2월 8일(금) 오후 3시~6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강 사: 이 시기를 알거니와, 문명충돌-
이원설 박사(전 한남대 총장)
이슬람법에서의 전쟁 대미테러에 대한 해석-이원삼 박사
(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
교회 역사에서 본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
김인수 박사(장신대 교수)

■ 제24회 학술세미나

- ▲ 주 제: 독일 및 한국통일에 있어서의 교회의 역할
- ▲ 일 시: 2002년 5월 20일(월) 오후 3시~6시
- ▲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

- ▲ 강 사: 독일 통일에 있어서의 교회의 역할-이영기 박사
(명지대 객원교수, 명지대 독일 및 유럽연구센터 소장)
- 한국통일에 있어서의 교회의 역할-서경석 목사
(서울조선족교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제25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청교도 신앙과 한국교회
- ▲ 일 시: 2002년 10월 28일(월) 오후 3시~6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강 사: 조나단 에드워즈와 청교도 신학-이상현 박사
(미 Princeton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 청교도 신앙운동과 한국교회-김영재 박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 제26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삼위일체론의 현대적 조명
- ▲ 일 시: 2003년 4월 10일(목) 오후 3시~5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강 사: 그리스도교적인 유신론으로서의 삼위일체론 이해
-오영석 박사(한국신학대학교 총장)
- 포스트 모던시대에 있어서의 삼위일체론 재조명
-이종성 박사(학술원 원장)

■ 제27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기독교 비교신학
- ▲ 일 시: 2004년 3월 5일(금) 오후 3시~5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강 사: 천주교와 개신교의 신학비교-이형기 박사(장로신학대학교 명예교수)
-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비교-이종성 박사(학술원 원장)

■ 제28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사회주의와 하나님의 나라
- ▲ 일 시: 2004년 9월 2일(목) 오후 3시~6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강 사: 사회주의와 북한의 실정은 어떠한가?-황장엽 선생
(전 북한노동당 비서장)
하나님 나라와 북한과 오늘의 세계-이종성 박사
(학술원 원장)

■ 제29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 ▲ 일 시: 2005년 4월 1일(금) 오후 3시~5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강 사: 나일성 박사(세계우주과학회 회장)

■ 제30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한국교회의 영성신학 이대로 좋은가?
- ▲ 일 시: 2005년 6월30일(목) 오후 3시~5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강 사: 기독교 영성과 예배-이종윤 박사(서울교회 담임목사)
영성.영성신학.영성훈련-김성영 박사(성결대학교 총장)

■ 제31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기독교 문화와 한국 문화
- ▲ 일 시: 2005년 10월 17일(월) 오후 3시~5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강 사: 이원설 박사(한국기독교학교연맹 이사장)

■ 제32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한국교회의 신학적 정체성 탐구 I
- ▲ 일 시: 2006년 5월 15일(월) 오전 10시~오후 4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강 사: 장로교회의 신학-이수영 박사(새문안교회 담임목사)
감리교회의 신학-박종천 박사(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성결교회의 신학-목창균 박사(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신정통주의와 개혁교회의 신학-김명용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제33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한국교회의 신학적 정체성 탐구 II
- ▲ 일 시: 2006년 9월 25일(월) 오전 10시~오후 5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강 사: 에큐메니칼 신학-송성진 박사(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펜테코스탈 신학-이영훈 박사(전 국제신학연구원 원장)
한국교회의 선교신학-김동선 박사(호남신학대학교 교수)
통전적 신학의 요청-이종성 박사(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제34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한국교회와 한국정치
- ▲ 일 시: 2007년 9월 28일(금) 오후 2시~오후 5시
- ▲ 장 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 ▲ 강 사: 교회와 정치-황우여 의원(제17대 국회의원 3선)
한반도 안보환경과 크리스천의 자세-제성호 박사
(중앙대학교 교수)

■ 제35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예수는 누구인가
- ▲ 일 시: 2008년 10월 10일(금) 오후 2시~오후 5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강 사: 성서학적으로 본 예수-이종윤 박사(서울교회 담임목사)
조직신학적으로 본 예수-김영한 박사
(송실대학교기독교학대학원장)

■ 제36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진화론 무엇이 문제인가?-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하면서
- ▲ 일 시: 2009년 7월 27일(월) 오후 3시~오후 5시
- ▲ 장 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 ▲ 강 사: 양승훈 박사(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

■ 제37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갈뱅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갈길
- ▲ 일 시: 2009년 11월 2일(월) 오후 3시~오후 5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강 사: 이수영 박사(새문안교회 담임목사)

■ 제38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한국교회와 W.C.C.
- ▲ 일 시: 2010년 6월 28일(월) 오후 2시~오후 7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 ▲ 제1강연: “이것이 W.C.C. 신학의 긍정과 부정”-이형기 박사
(장신대 명예교수)
논찬-이승기 박사(합신대 교수)

- ▲ 제2강연: “W.C.C.신학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김길성 박사
(총신대 부총장)
논찬-박성원 박사(영남신대 교수)
- ▲ 제3강연: “W.C.C.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박종화 박사
(경동교회 담임목사)
논찬-권호덕 박사(백석대 교수)
- ▲ 제4강연: “제10차 W.C.C. 부산총회 어떻게 대처할까?”-양낙홍 박사
(고신대 교수)
논찬-임희국 박사(장신대 교수)

■ 제39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한국교회를 진단한다.
- ▲ 일 시: 2011년 5월 23일(월) 오후 2시~오후 7시
- ▲ 장 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 ▲ 제1강연: “역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명암(明暗)”
좌장: 이상규 박사(고신대 교수)
발제: 김홍기 박사(감신대 총장)
논찬: 박용규 박사(총신대 교수)
- ▲ 제2강연: “신학적 관점에 본 한국교회의 허(虛)와 실(實)”
좌장: 도한호 박사(침례신대 총장)
발제: 김명용 박사(장신대 교수)
논찬: 권호덕 박사(백석대 교수)
- ▲ 제3강연: “윤리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현실(現實)”
좌장: 유석성 박사(서울신대 총장)
발제: 강원돈 박사(한신대 교수)
논찬: 손규태 박사(성공회신대 윤리학회 회장)

■ 제40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생명신학과 의학
- ▲ 일 시: 2011년 10월 24일(월) 오후 2시~오후 5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 1강연: “살려주는 영 · 마지막 아담”-이종윤 박사(학술원 원장)
논찬: 조광호 박사(서울장신대 교수)
- ▲ 제 2강연: “줄기세포 연구와 난치병 치료”-라정찬 박사
(RNL바이오 회장)
논찬: 서유헌 박사(서울대 의대 교수)

■ 제41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교회의 공적책임-공동선(The Common Good)과
공적 진리(Public Truth)
- ▲ 일 시: 2012년 5월 21일(월) 오후 2시~오후 5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1강연: “교회와 사회에서의 공동선(The Common Good)을 어떻게
실천할까?”-송용원 박사(연세대졸, 에딘버러대 Ph.D.)
논찬: 박경수 박사(서울대졸, 클레어몬트대 Ph.D.)
- ▲ 제2강연: “공적진리(The Public Truth)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의 공적책임”
-류태선 박사(서울대졸, 장신대 Th.D.)
논찬: 김재진 박사(연세대졸, 문스터대 Dr. Theol.)

■ 제42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WEA-WCC Dialogue-A New Horizon of World
Christianity: Convergence between the Ecumenical and
Evangelical Understandings of Unity and Mission.
- ▲ 일 시: 2012년 10월 22일(월) 오후 2시~오후 6시
- ▲ 장 소: 서울교회
- ▲ 기조강연: 이종윤 박사
- ▲ 주제강연: WEA / Dr. Thomas Schirrmacher, 김상복 박사
WCC / Dr. Martin Robra, 금주섭 박사

■ 제43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교회소생 Church Revitalization)
- ▲ 일 시: 2013년 5월 20일(월) 오후 2시~오후 5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1강연: “교회소생의 성경적 논거
(Biblical Foundation of Church Revitalization)”-
권성수 박사(총신대 교수)
논찬: 왕대일 박사(감신대 교수)
- ▲ 제2강연: “교회소생에서 복음설교의 동력적 역할
(Vital role of Gospel preaching in Church Revitalization)”-
정장복 박사(장신대 명예교수)
논찬: 오영석 박사(한신대 명예교수)

■ 제44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바울신학에 대한 새 관점학파(School of the New
Perspective on Paul)의 비판적 연구
- ▲ 일 시: 2013년 10월 14일(월) 오후 2시~오후 6시
- ▲ 제1강연: 발제-김철홍 박사(장신대 교수)
논찬-권혁승 박사(서울신대 교수)
- ▲ 제2강연: 발제-변종길 박사(고신대 교수)
논찬-최흥식 박사(횡볼트리니티신대 교수)

■ 제45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한반도 자유.정의.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입장
- ▲ 일 시: 2014년 5월 19일(월) 오후 2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1강연: 성경적.신학적 입장
발제1-이종윤 박사(학술원 원장, 서울교회 원로목사)

발제2-김영한 박사(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 초대원장,
살롬나비 회장)

- ▲ 제2강연: 정치적·국제적 입장
 - 발제1-류우익 박사(통일부 前장관, 주 중국 前 대사)
 - 발제2-이정훈 박사(연세대 교수, 대한민국 인권대사)
- ▲ 제3강연: 사회적, 군사적 입장
 - 발제1-손봉호 박사(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 발제2-박용옥 박사(국방부 前 차관, 한국국방연구원 상임고문)

■ 제46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 ▲ 일 시: 2014년 10월 20일(월) 오후 2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1강연: 교리적 개혁-배경식 박사(한일장신대 조직신학 교수)
- ▲ 제2강연: 예배개혁-이승구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 ▲ 제3강연: 생활개혁-안명준 박사(평택대학교 신학과 교수)

■ 제47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한국장로교회 한교단다체제와 한국교회연합
- ▲ 일 시: 2015년 5월 18일(월) 오후 2시
- ▲ 장 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 ▲ 제1강연: 한국장로교회의 한교단다체제의 허와실-
박경수 박사(장신대 교수)
논찬-이상규 박사(고신대 교수)
- ▲ 제2강연: 발제-김정우 박사(총신대 신대원 교수)
논찬-최갑종 박사(백석대 총장)

■ 제48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문화의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Culture)
- ▲ 일 시: 2015년 10월 19일(월) 오후 2시
- ▲ 장 소: 여전도회관 루이시 기념관
- ▲ 제1강연: 민족의 얼을 일깨우는 문화 운동을, 기독교가 조신권 박사
(연세대 명예교수)
- ▲ 제2강연: 계시와 문화, 20세기 초반 중국 선교사 빌헬름
(R.Wilhelm)의 중국 전통문화 이해를 중심으로-
임희국 박사(장신대 교수)

■ 제49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인권과 통일
- ▲ 일 시: 2016년 5월 23일(월) 오후 2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1강연: 북한 인권과 통일-주승현 박사(전주기전대학교 교수)
논찬-김태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고문 변호사)
- ▲ 제2강연: 한국교회와 인권-박명수 박사(서울신대 교수)
논찬-김일수 박사(전 고대 법대 학장)

■ 제50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종교개혁과 오늘의 한국
- ▲ 일 시: 2016년 10월 17일(월) 오후 2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1강연: 종교개혁과 한국의 교회개혁-김성봉 박사
(신반포중앙교회 담임목사)
- ▲ 제2강연: 종교개혁과 한국의 정치개혁-김철홍 박사(장신대 신약학 교수)
- ▲ 제3강연: 종교개혁과 한국의 사회개혁-노영상 박사(호남신대 총장)
- ▲ 제4강연: 종교개혁과 한국의 문화개혁-김지훈 박사(안양대 신대원 강사)

■ 제51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종교개혁의 국제적 영향과 계속되는 개혁운동과의 연관성
(The Global Impact of the Reformation & its Relevance for continuing Reformation)
- ▲ 일 시: 2017년 5월 15일(월) 오후 2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1강연: 종교개혁자들의 논지: Sola's에 대한 이 시대의 이해
(The Key points of the Reformers: the understanding of these "Sola's" in our own setting)-
이종운 박사(학술원 원장)
- ▲ 제2강연: '오직 성경만으로' 그리고 이제와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Sola Scriptura then and Now: Until Everything is accomplished)-정성국 박사(아세아연합신대 교수)
- ▲ 제3강연: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적합성(The relevance of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Today)
-이승구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 제4강연: 가난과 번영의 삶 속에서 동정과 측은히 여기는 사역에 대한 복음의 도전(The Ministries of Mercy and Compassion in the Midst of Poverty and Prosperity Gospel Challenges)-김철홍 박사(장신대 교수)

■ 제52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3.1운동과 한국교회
- ▲ 일 시: 2018년 5월 28일(월) 오후 2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1강연: 3.1운동과 기독교-이상규 박사(고신대학교 교수)
논찬-박명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 제2강연: 기독교사에서 본 3.1운동과 21세기의 의미-김권정 박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논찬-연규홍 박사(한신대학교 총장)

■ 제53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3.1운동과 자유민주주의
- ▲ 일 시: 2018년 10월 29일(월) 오후 2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1강연: 3.1운동·기독교 그리고 대한민국-박명수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찬-김용직 박사(성신여대 교수)
- ▲ 제2강연: 한국민주주의와 3.1운동의 의의-김광동 박사
(나라정책연구원장)
논찬-이민원 박사(동아역사연구소 소장)

■ 제54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개혁교회의 종말신학과 부활신앙
- ▲ 일 시: 2019년 5월 20일(월) 오후 2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1강연: 사후(死後) 인간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이승구 박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논찬-이상웅 박사(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 ▲ 제2강연: 우주의 종말과, 마지막 아담 · 살려주는 영-김은수 박사
(안양대신대원 조직신학 교수)
논찬-김의창 박사(햇불트리니타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신학 교수)

■ 제55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예수에 대한 재판
- ▲ 일 시: 2019년 10월 21일(월) 오후 2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1강연: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재판
발제-박찬웅 박사(목원대 신학과 교수)

- ▲ 제2강연: 형사법에 의한 예수에 대한 재판
발제-김일수 박사(북경사범대 객좌교수)
- ▲ 총 평-김영훈 박사(한국교회법연구원 원장)

■ 제56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새로운 안디옥 대한민국-현대 사회의 선교와 전도
- ▲ 일 시: 2020년 5월 18일(월) 오후 2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1강연: 교육선교-이규민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석좌교수)
- ▲ 제2강연: 사회복지선교-이승열 박사(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
- ▲ 제3강연: 명목상 신자전도-남정우 박사(하늘담은교회 담임목사)

■ 제57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COVID-19가 불러온 비정상·비대면 시대와 한국교회의 전망
- ▲ 일 시: 2021년 5월 24일(월) 오후 2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1강연: 국가와 교회의 관계-이상규 박사(고신대 명예교수)
- ▲ 제2강연: 사회와 교회의 관계-박홍규 박사(전 침신대 교수)
- ▲ 제3강연: 자연·환경과 교회의 관계-노영상 박사
(총회한국교회연구원 원장)
- ▲ 제4강연: 회복해야 할 신학, 목회, 교육, 선교의 본질과 현실
-이승구 박사(합신대 교수)
발제-김의창 박사(헛볼트리니티신대원 교수)

■ 제58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한국 기독교 신도들의 신앙생활 모범-
청교도 운동과 언약도 운동을 중심으로
- ▲ 일 시: 2022년 5월 23일(월) 오후 2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1강연: 청교도 운동을 중심으로-신호섭 박사(고신대 교수)
- ▲ 제2강연: 언약도 운동을 중심으로-서창원 박사(총신대 전 교수)

■ 제59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북한의 기독교-선전을 중심으로
- ▲ 일 시 : 2022년 10월 24일(월) 오후 2시
- ▲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1강연: 북한지역(선전)에서의 기독교-신성학교를 중심으로
-박응규 박사(아신대 교수)
- ▲ 제2강연: 선천기독교-구령과 구국의 합치신학-김명구 박사
(서울 YMCA 월남시민 문화연구소 소장)

■ 제60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기독교와 이데올로기
- ▲ 일 시: 2023년 5월 25일(목) 오후 2시
- ▲ 장 소: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
 - ▲ 제1강연: 그리스도인과 전쟁, 그리고 평화-전쟁과 평화론의 3가지 유형
-이상규 박사(백석대 교수)
- ▲ 제2강연: 칼바르트의 종교사회주의-노영상 박사(호남신대 전 총장)
논 찬: 김성봉 박사(학술원 이사)

■ 제61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창조인가, 진화인가?-최근의 과학적 발견과의 대화
- ▲ 일 시: 2023년 11월 16일(목) 오후 2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1강연: 창조인가, 진화인가-여기에 답이 있습니다-김명용 박사
(전 장신대 총장)
- ▲ 제2강연: 종교는 폐기되어야 하는가?-리처드 도킨스의 비판과

종교의 유용성에 대한 소고-김도훈 박사(장신대 교수)
논 찬: 박 만 박사(부산장신대 교수)

■ 제62회 공개강연회

- ▲ 주 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이론에 대한 대토론
- ▲ 일 시: 2024년 5월 24일(목) 오후 2시
- ▲ 장 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 제1강연: 그리스도인은 언제 부활하는가? -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교리의 성경적 근거-
최태영 박사(영남신대 명예교수, 온신학회 회장)
- ▲ 제2강연: 부활 신앙의 기원과 부활의 시간-이신건 박사
(서울신대 명예교수, 성결신학연구소 소장)
논 찬: 이승구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